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2020 October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October 2020, 10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①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  
수 Wed

그에 의해,  
그를 통해,  
그를 위해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 1 통독본문 Reading Plan

골로새서 Colossians 1장

### 3 새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 4 아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2

내지샘플

## 5 백집기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새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를 보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이 믿음 가운데 더욱 뿌리내리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 2

## 6

골로새서 1:9-20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  
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  
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  
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  
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  
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  
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  
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  
께 섰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히 만물의 으뜸  
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  
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  
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Reading Insight

As Paul and Timothy wrote the epistles to the saints of the new churches in Colossae, they thanked God for their faith and love, and prayed for the growth of their deeply rooted faith that all things are created by Christ and for Christ.

### Colossians 1:9-20

<sup>9</sup> And so, from the day we heard, we have not ceased to pray for you, asking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sup>10</sup> so as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fully pleasing to him,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sup>11</sup> May you be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for all endurance and patience with joy,

<sup>12</sup>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sup>13</sup>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sup>14</sup>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sup>15</sup>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sup>16</sup>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sup>17</sup>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sup>18</sup>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sup>19</sup>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sup>20</sup>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 7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만물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16절)  
By whom, through whom, and for whom are all things created? (v. 16) -

만물과 만물이,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케 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 무엇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까? (20절)  
Through whom and by what is the harmony among all things and between God and all things possible? (v. 20)

### 8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전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임스 사랑의 교회, 이병훈(A)  
과드시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형배(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34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바울의 신년 연설

New Year message by Paul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시어도어 파커의 글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연설은 of, by, For, 이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반면 바울은 링컨보다 약 1,800년 전에 by, through, for라는 전치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자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 세워진 콜로새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분의 우월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을 포함한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16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 없이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17절). 비록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의 한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불의가 실재하지만, 참된 현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화목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분에 의해(by) 다스려지고, 그분을 힘입어(through) 행동하며, 그분을 위해(for)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In the midst of Civil War on November 19, 1863, Abraham Lincoln at Gettysburg made the famous speech by quoting from Theodore Parker,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he speech used three prepositions: “of, by and for” to illustrate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Paul 1,800 years earlier than Lincoln, through three prepositions of “by, through, and for”, taught the believers who Christ was. Paul had a special reason for writing the epistle to the saints of the newly planted church in Colossae. Although they had the faith, they did not yet fully understand what it meant to believe in Christ and the sovereignty and sufficiency of Christ. All things including all worldly power and authority were created by Christ and through Christ and for Christ. (v. 16) We should not forget that Christ was the king of the kings though He died on the cross defenselessly as a young man. All things in the world we live cannot exist without Christ. (v. 17) There exist unrighteous things in the world as if the world is taken over by evil power but that is not true reality.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unrighteousness, true reality is that Jesus Christ will ultimately rule the world and through Him all things will live in harmony. As we face new year 2020, the faith that we must grab on is that this new year will be ruled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5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 혼자서도 문제없다

###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정예배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10

[illegible]

TUESDAY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예레미야  
Jeremiah  
25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예레미야 Jeremiah 1장 □	2 예레미야 Jeremiah 2장 □	3 예레미야 Jeremiah 3장 □
7 예레미야 Jeremiah 6장 □	8 예레미야 Jeremiah 7장 □	9 예레미야 Jeremiah 8-9장 □	10 예레미야 Jeremiah 10장 □
14 예레미야 Jeremiah 13장 □	15 예레미야 Jeremiah 14장 □	16 예레미야 Jeremiah 15장 □	17 예레미야 Jeremiah 16장 □
21 예레미야 Jeremiah 19-20장 □	22 예레미야 Jeremiah 21장 □	23 예레미야 Jeremiah 22장 □	24 예레미야 Jeremiah 23장 □
28 예레미야 Jeremiah 26장 □	29 예레미야 Jeremiah 27장 □	30 예레미야 Jeremiah 28장 □	31 예레미야 Jeremiah 29장 □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이야기로 알아보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BC 7세기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꿰뚫어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견과 생각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한 채널을 통해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대를 고스란히 읽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기울어가는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 두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반역자라는 누명을 썼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 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는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고 다니면서, 미구에 닥쳐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몸짓 언어로 예고했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다 왕들은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을 의지해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 예배 드리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종하며 살고 나서 이곳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 이곳은 성전이 아닌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 경건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경건의 모습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외적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고, 외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인 구별이 중요하다는 것,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더 중요한 내적 신앙은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대충 하고, 중요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이는 외적 경건의 모습에 너무 치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게 말해서 진정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나쁘게 말하면 평생 가짜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달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외친 내용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외적 경건의 모습에 치중하면 결국 망합니다. 반드시 내적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자연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진실한 중심의 신앙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목사/예수사랑교회, CA

01 OCT  
목 Thu

## 하나님의 부르심

The Calling of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장



새529장(통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요시아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11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멸망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부르셨으며,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 예레미야 1:4-16

- 4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고
-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11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 무가지를 보나이다
- 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 13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 15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16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 Reading insight

Jeremiah was called by God during the thirteenth year of King Josiah's reign. He was a prophet of tears as a messenger of the Word of God who witnessed the fall of Judah during the eleventh year of King Zedekiah's reign. When Jeremiah was called by God, he was not sure if he could do the job but God never gave up. God continued to call Jeremiah until the end and gave him the promise to enable him to finish his mission.

## Jeremiah 1:4-16

**4**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5**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and before you were born I consecrated you; I appointed you a prophet to the nations.”

**6** Then I said, “Ah, Lord GOD! Behold, I do not know how to speak, for I am only a youth.”

**7** But the LORD said to me, “Do not say, ‘I am only a youth’; for to all to whom I send you, you shall go, and whatever I command you, you shall speak.

**8**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declares the LORD.”

**9** Then the LORD put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the LORD said to me,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10** See, I have set you this day over nations and over kingdoms,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 to destroy and to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11**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Jeremiah, what do you see?” And I said, “I see an almond branch.”

**12** Then the LORD said to me, “You have seen well, for I am watching over my word to perform it.”

**13**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a second time, saying, “What do you see?” And I said, “I see a boiling pot, facing away from the north.”

**14** Then the LORD said to me, “Out of the north disaster shall be let loose upon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15** For behold, I am calling all the tribes of the kingdoms of the north, declares the LORD, and they shall come, and every one shall set his throne at the entrance of the gates of Jerusalem, against all its walls all around and against all the cities of Judah.

**16** And I will declare my judgments against them, for all their evil in forsaking me. They have made offering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 works of their own hands.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보여주신 두가지 환상은 무엇인가요? (11-14절)

What are the two visions God showed to give assurance to Jeremiah? (vs. 11-14)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What are your calling and mission to deal with a society where the value of the Word of God has diminishe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여호와와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I only deliver the Word of the LORD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주제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나라에 관한 예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그의 마음을 함께 고민해보고, 진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과 용기의 모범을 나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순종과 성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The Book of Jeremiah begins with the story of how Jeremiah was called by God as a prophet and continues with prophecy regarding the kingdom of Israel and Judah. The core subject of the Book of Jeremiah is very simple. “Repent and come back to God, then you shall not face the judgement.” However, because the people of Israel refused to accept this admonition, Jeremiah began to prophesy the fall of Jerusalem. He used examples of the prophecies of many nations as his conclusion. As we read the Book of Jeremiah, as we share the agony of Jeremiah who felt the obligation to proclaim only the Word of God, and as we pray for those who do not respond to the truth, can we be an example of faith and courage? I pray that your life will be successful as God desires for you by being obedient and faithful to Him, not success as defined by worldly standard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2 OCT  
금 Fri

## 하나님의 실망

Disappointment  
of Go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장



새290장(통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애와 사랑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 부터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예레미야 2:20-29

**20**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1**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나

**22**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23**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24**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험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25**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26**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7**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29**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나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Reading insight

God had a fond memory for the wilderness of the desert. During that time, the people of Israel followed God with passion and love. However, one day Israel left God and began worshiping idols defiling the land of God. They abandoned God who was the source of spring water and dug their own cistern. They would eventually receive God's judgment.

## Jeremiah 2:20–29

**20** “For long ago I broke your yoke and burst your bonds; but you said, ‘I will not serve.’ Yes,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green tree you bowed down like a whore.

**21** Yet I planted you a choice vine, wholly of pure seed. How then have you turned degenerate and become a wild vine?

**22** Though you wash yourself with lye and use much soap, the stain of your guilt is still before me, declares the Lord GOD.

**23** How can you say, ‘I am not unclean, I have not gone after the Baals’? Look at your way in the valley; know what you have done-- a restless young camel running here and there,

**24** a wild donkey used to the wilderness, in her heat sniffing the wind! Who can restrain her lust? None who seek her need weary themselves; in her month they will find her.

**25** Keep your feet from going unshod and your throat from thirst. But you said, ‘It is hopeless, for I have loved foreigners, and after them I will go.’

**26** “As a thief is shamed when caught, so the house of Israel shall be shamed: they, their kings, their officials, their priests, and their prophets,

**27** who say to a tree, ‘You are my father,’ and to a stone, ‘You gave me birth.’ For they have turned their back to me, and not their face. But in the time of their trouble they say, ‘Arise and save us!’

**28** But where are your gods that you made for yourself? Let them arise, if they can save you, in your time of trouble; for as many as your cities are your gods, O Judah.

**29** “Why do you contend with me? You have all transgressed against me, declares the LOR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무엇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13절)

God said that Israel would face shame. What is making them shameful? (2:13)

여러분들의 무엇이 하나님을 잊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What in your life is making you forget God? As a Christian, do you always remember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His resurrection?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석(OH)  
캐논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죄는 자국을 남긴다

Sins leave stains behind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신혼 때의 사랑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셨고, 그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가 되어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방의 악한 야생 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22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들의 삶을 얼룩지게 합니다. 그 겉과 속 모두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 가려보려 하고, 또 가려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뚜렷하게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The compassion of God toward Israel was so immense, just like that of a newlywed. God took care of them in the wilderness of the desert and made them the first fruit so as to be distinguished as holy. However, one day they began to disobey the will of God and began to live spiritually corrupt lives. They abandoned God as the source of spring water, began to dig their own cistern, and ended up like evil and terribly smelly wild grapes of the Gentiles. The sins of the Israelites were so gross that the sovereign LORD declared to the Israelites, “Although you use an abundance of soap, the stain of your guilt is still before me.” (v. 22)

Sins contaminate our lives and leave stains behind, both inside and outside. People mobilize many schemes to hide their sin and foolishly think that they are hidden, but the stains of their sins are very visible to God. The only way to eliminate the stains is through Go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3 OCT  
토 Sat

## 북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나쁘다

Judah is worse than  
Northern Israel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3장



새531장(통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지켜본 유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쫓겨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 예레미야 3:6-18

**6**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7**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2**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3**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4**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드지 아니할 것이며

**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 Reading insight

Northern Israel left God to worship idols and practice debauchery and ended up facing the wrath and judgment of God. However, while Judah was watching from the sideline, Judah also did not fear God, but worshiped idols and ended up facing the anger and judgment of God. God recalls His people who were spurned by Him. He will pick a shepherd among them who fits the will of God.

### Jeremiah 3:6-18

**6** The LORD said to me in the days of King Josiah: “Have you seen what she did, that faithless one, Israel, how she went up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green tree, and there played the whore?”

**7** And I thought, ‘After she has done all this she will return to me,’ but she did not return, and her treacherous sister Judah saw it.

**8** She saw that for all the adulteries of that faithless one, Israel, I had sent her away with a decree of divorce. Yet her treacherous sister Judah did not fear, but she too went and played the whore.

**9** Because she took her whoredom lightly, she polluted the land, committing adultery with stone and tree.

**10** Yet for all this her treacherous sister Judah did not return to me with her whole heart, but in pretense, declares the LORD.”

**11** And the LORD said to me, “Faithless Israel has shown herself more righteous than treacherous Judah.

**12** Go, and proclaim these words toward the north, and say, “Return, faithless Israel,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look on you in anger, for I am merciful,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be angry forever.

**13** Only acknowledge your guilt, that you rebelled against the LORD your God and scattered your favors among foreigners under every green tree, and that you have not obeyed my voice, declares the LORD.

**14** Return, O faithless children, declares the LORD; for I am your master; I will take you, one from a city and two from a family, and I will bring you to Zion.

**15** “And I will give you shepherds after my own heart, who will feed you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16** And when you have multiplied and increased in the land, in those days, declares the LORD, they shall no more say,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It shall not come to mind or be remembered or missed; it shall not be made again.

**17** At that time Jerusalem shall be called the throne of the LORD, and all nations shall gather to it, to the presence of the LORD in Jerusalem, and they shall no more stubbornly follow their own evil heart.

**18** In those days the house of Judah shall join the house of Israel, and together they shall come from the land of the north to the land that I gave your fathers for a heritage.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만약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행음한다면, 신랑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How would the groom feel if the bride engages in fornication? What was the Word of God to the people of Israel and Judah who left God? (v. 8)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Are we “born again” Christians? Let us meditate about the mind of Jesus that we should imitate? (Philippians 2)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마당연합감리교회, (OH)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P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we real Christians?

하나님의 슬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10절) 이 세상에는 약 2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이며,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즉 교만이 살아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그 겸손입니다.

I feel like hearing God's sad voice. The LORD declared, “In spite of all this, her unfaithful sister Judah did not return to me with all her heart, but only in pretense.” (v. 10) It is said there are about 2 billion Christians in the world. What would this world look like if many Christians lived their lives like Jesus did with the mind of Jesus? But it is apparent that ‘Not so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like Jesus.’

Though they are called Christians, their thoughts and minds are self-centered and their deeds are deceitful. Why? In short, the pride inside of us. In other words, the arrogance alive inside keeps feeding the thought, “I am all right.” It is written in James 4: 6,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What we need now is humility, “I die every day and Jesus in me live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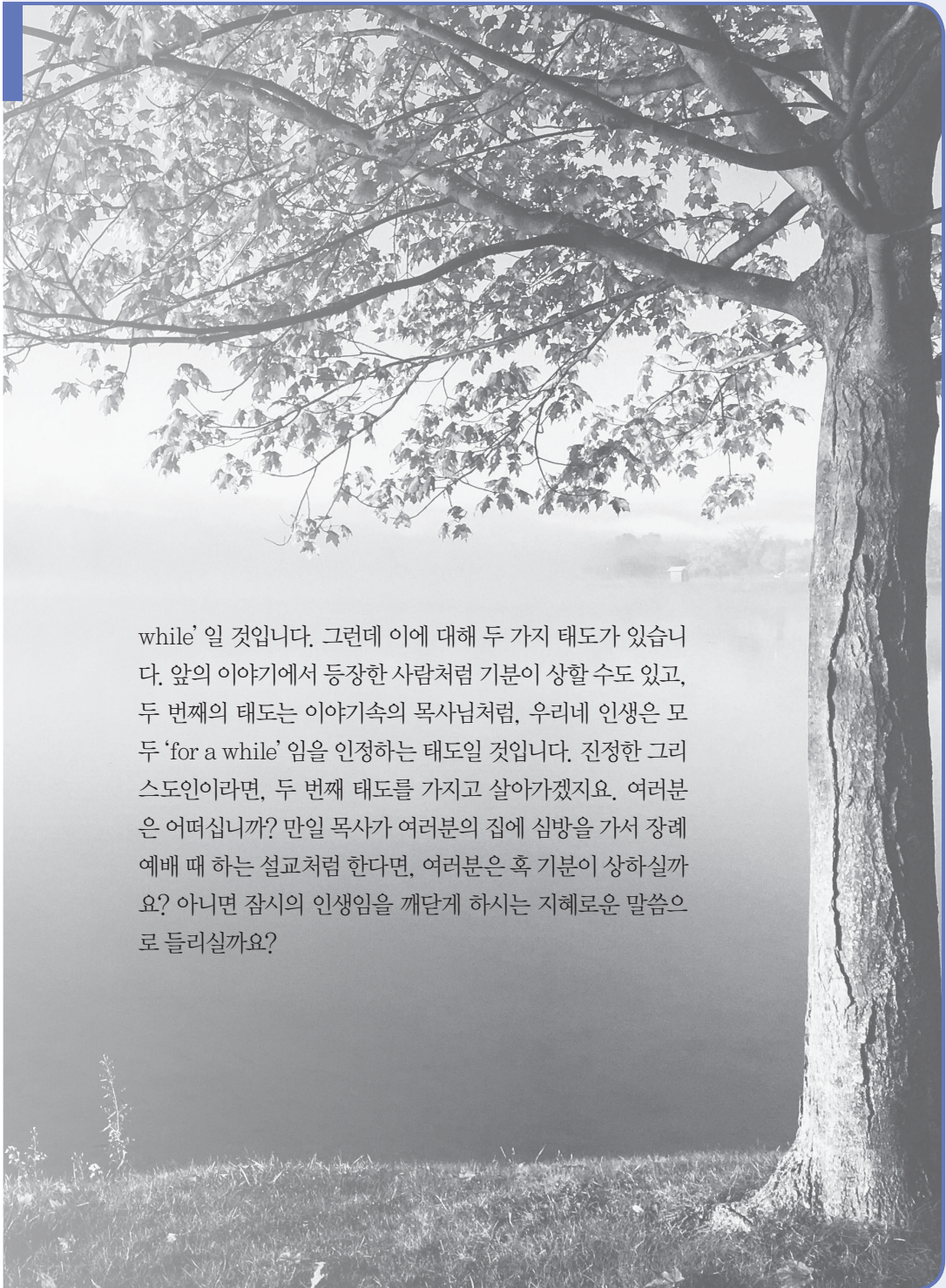
---

## For a While

김영훈 목사(와싱턴한인교회, VA)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대화 중에, 미국사람들의 'joke'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건강을 체크하려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심방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곧 죽을 사람에게 하시듯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한 그분이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잠깐(for a while) 검진받으러 온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더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는 다 ‘for a while’ 입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이야기가 ‘joke’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목회칼럼을 무엇에 대해 쓸까 생각하는 중에 ‘for a while’이 생각나고 또 생각났습니다. 벌써 10월 문턱을 밟게 됩니다. 왜 이리도 빠르지요! 정말 올 해에도 ‘for a while’이라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for a



while’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등장한 사람처럼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두 번째의 태도는 이야기속의 목사님처럼, 우리네 인생은 모두 ‘for a while’임을 인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두 번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심방을 가서 장례 예배 때 하는 설교처럼 한다면, 여러분은 혹 기분이 상하실까요? 아니면 잠시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실까요?



05 OCT  
월 Mon

## 하나님의 두 마음

Two different minds  
of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4장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며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는 중에도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요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 전부를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 예레미야 4:1-4, 19-27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9**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20**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21**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23**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 Reading insight

God sends strong requests to the people of Judah to return to God. But God also says His judgment will bring destruction to them because they would not return to Him. Their land would become desolate and God will bring everything down. But even while God talks about His judgment, He does not stop His plea for them to return to Him. God leaves a glimmer of hope by saying, 'I will not destroy them completely.'

### Jeremiah 4:1-4, 19-27

**1** “If you return, O Israel, declares the LORD, to me you should return. If you remove your detestable things from my presence, and do not waver,

**2** and if you swear, ‘As the LORD lives,’ in truth, in justice, and in righteousness, then nations shall bless themselves in him, and in him shall they glory.”

**3** For thus says the LORD to the men of Judah and Jerusalem: “Break up your fallow ground, and sow not among thorns.

**4** Circumcise yourselves to the LORD; remove the foreskin of your hearts, O men of Judah and inhabitants of Jerusalem; lest my wrath go forth like fire, and burn with none to quench it, because of the evil of your deeds.”

**19** My anguish, my anguish! I writhe in pain! Oh the walls of my heart! My heart is beating wildly; I cannot keep silent, for I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the alarm of war.

**20** Crash follows hard on crash; the whole land is laid waste. Suddenly my tents are laid waste, my curtains in a moment.

**21** How long must I see the standard and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22** “For my people are foolish; they know me not; they are stupid children; they have no understanding. They are ‘wise’--in doing evil! But how to do good they know not.”

**23** I looked on the earth, and behold, it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to the heavens, and they had no light.

**24** I looked on the mountains, and behold, they were quaking, and all the hills moved to and fro.

**25** I looked, and behold, there was no man, and all the birds of the air had fled.

**26** I looked, and behold, the fruitful land was a desert, and all its cities were laid in ruins before the LORD, before his fierce anger.

**27** For thus says the LORD, “The whole land shall be a desolation; yet I will not make a full end.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망 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God gave Israel a last chance for redemption before she fell. What was God's detailed request of the Israelites?

(vs. 1-4)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비우고 버려야 할까요?

Even now God calls us “to return to God.” What do I need to empty and abandon in order to return to Go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들레헨한인연합감리교회, 김중혁(PA)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P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We should become sensitive to the voice of God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이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때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를 향해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상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려라”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When God made the covenant, He told us two things. (1)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2) “Be sure to keep and obey the commands and the Laws of the LORD.” However, these two things disappeared from the lands of Israel and Judah. Their people forgot God, worshiped idols, and loved many things more than God. They had gone astray from the commands and laws of the LORD and lived according to their own thoughts and judgment. In a sense, our own world now is beginning to look like that.

To Israel and Judah, God’s incoming judgment warned that Israel would be ruined. To the remaining people of Judah, God proclaimed with anxiety and desperation, “Abandon evil thought, do not depend on idols or material things but exalt the LORD.” Only if they return to God would He restore them. But they still closed their ears.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e sensitive to the voice of God. Love God and live life with thanksgiving, joy, and pea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어찌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을까?

How could God not  
pass judgment?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5장



새446장(통500장)  
주 음성 외에는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오늘 본문에는 용서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을 폭로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 예레미야 5:20-31

**20**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  
르기를

**21**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22**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  
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  
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3**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  
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  
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  
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6**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27**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  
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변창하고 거부가 되어

**28**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  
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  
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29**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  
음이 이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30**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  
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  
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 Reading insight

Today's text speaks of the unforgivable sins of Jerusalem and the grounds upon which God's judgment and calamity must come. It also exposes and warns of the lies of religious leaders who only proclaim words that are pleasant to hear.

### Jeremiah 5:20–31

**20** Declare this in the house of Jacob; proclaim it in Judah:

**21** “Hear this, O foolish and senseless people, who have eyes, but see not, who have ears, but hear not.

**22** Do you not fear me? declares the LORD. Do you not tremble before me? I placed the sand as the boundary for the sea, a perpetual barrier that it cannot pass; though the waves toss, they cannot prevail; though they roar, they cannot pass over it.

**23** But this people has a stubborn and rebellious heart; they have turned aside and gone away.

**24** They do not say in their hearts, ‘Let us fear the LORD our God, who gives the rain in its season, the autumn rain and the spring rain, and keeps for us the weeks appointed for the harvest.’

**25** Your iniquities have turned these away, and your sins have kept good from you.

**26** For wicked men are found among my people; they lurk like fowlers lying in wait. They set a trap; they catch men.

**27** Like a cage full of birds, their houses are full of deceit; therefore they have become great and rich;

**28** they have grown fat and sleek. They know no bounds in deeds of evil; they judge not with justice the cause of the fatherless, to make it prosper, and they do not defend the rights of the needy.

**29** Shall I not punish them for these things? declares the LORD, and shall I not avenge myself on a nation such as this?”

**30** An appalling and horrible thing has happened in the land:

**31** the prophets prophesy falsely, and the priests rule at their direction; my people love to have it so, but what will you do when the end comes?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길래, 그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까요? (31절)

What kind of things happened to Israel that caused God to say, “A horrible and shocking thing has happened in the land”? (v. 30)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Is the standing of my faith closer to “what I want” or “what God wants”?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PA)  
필라델피아제일 KUMC, (P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본질을 잊은 교회들

Churches that forgot the essence

뉴욕 Resurrection Church의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과잉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8가지 특징”이란 칼럼을 통해, 은혜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경의 본질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은혜라는 것을 앞세워서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설교자가 죄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2. 목회자가 현 문화에 대해 의로운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3. 구약은 무시한다.
4.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사역을 이끌게 한다.
5. 목회자가 제도적 교회를 거부한다.
6. 목회자가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거부한다.
7. 설교자가 긍정적인 동기만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8. 교회 중직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죄를 지으며 산다.

마테라 목사님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갖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21)

Rev. Joseph Mattera, pastor of Resurrection Church in New York, wrote a column called “8 Traits of Churches Overwhelmed by Excessive Grace”. In it he declared that the essence of the bible is damaged by overly emphasizing grace. Although grace is solely the gift of God, there are many churches that distort the essence of the Gospel by abusing the message of grace.

1. The preacher does not mention sin during sermons.
2. The clergy does not take a righteous point of view of contemporary culture.
3. The Old Testament is ignored.
4. People with questionable moral and ethical backgrounds are allowed to lead ministries or allowed to teach at churches.
5. The clergy refuses to honor institutional churches.
6. The clergy refuses to preach about tithing.
7. The preacher delivers only those messages that elicit positive motivation.
8. Leaders of the church commit sins and live without any reprimand or restriction.

Rev. Mattera admonishes, “Brothers, have love, but maintain a firm and righteous attitude toward sin.” God speaks. “Hear this, you foolish and senseless people, who have eyes but do not see, who have ears but do not hear.” (v. 21)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7 OCT  
수 Wed

##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now?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6장



새255장(통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멸망과 심판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고 안심하며 보낸 시간의 결과라고 선포합니다.

### 예레미야 6:6-18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박한 것뿐이니라

**7**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갭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11** 그러므로 여호와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 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었드러지는 자와 함께 었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이 들으라 무리들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 Reading insight

The prophet Jeremiah now declares that the destruction and judgment that Israel will face is the result of the time they have taken their own wounds lightly and possessed reassuring peace of mind.

### Jeremiah 6:6–18

**6** For thus says the LORD of hosts: “Cut down her trees; cast up a siege mound against Jerusalem. This is the city that must be punished; there is nothing but oppression within her.

**7** As a well keeps its water fresh, so she keeps fresh her evil; violence and destruction are heard within her; sickness and wounds are ever before me.

**8** Be warned, O Jerusalem, lest I turn from you in disgust, lest I make you a desolation, an uninhabited land.”

**9**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y shall glean thoroughly as a vine the remnant of Israel; like a grape-gatherer pass your hand again over its branches.”

**10** To whom shall I speak and give warning, that they may hear? Behold, their ears are uncircumcised, they cannot listen; behold, the word of the LORD is to them an object of scorn; they take no pleasure in it.

**11** Therefore I am full of the wrath of the LORD; I am weary of holding it in. “Pour it out upon the children in the street, and upon the gatherings of young men, also; both husband and wife shall be taken, the elderly and the very aged.

**12** Their houses shall be turned over to others, their fields and wives together, for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the inhabitants of the land,” declares the LORD.

**13** “For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of them, everyone is greedy for unjust gain; and from prophet to priest, everyone deals falsely.

**14** They have healed the wound of my people lightly, saying, ‘Peace, peace,’ when there is no peace.

**15** Were they ashamed when they committed abomination? No, they were not at all ashamed; they did not know how to blush. Therefore they shall fall among those who fall; at the time that I punish them, they shall be overthrown,” says the LORD.

**16** Thus says the LORD: “Stand by the roads, and look, and ask for the ancient paths, where the good way is; and walk in it, and find rest for your souls. But they said, ‘We will not walk in it.’

**17** I set watchmen over you, saying, ‘Pay attention to the sound of the trumpet!’ But they said, ‘We will not pay attention.’

**18** Therefore hear, O nations, and know, O congregation, what will happen to them.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이스라엘이 어떤 시간을 보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6–17절)

How did Israel spend their time that deserved the judgment of God? (vs. 6–17)

큰 병이 걸렸음에도, 그 병을 작게 여기거나 올바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으셨나요?

When you are diagnosed with a serious illness, if you treat the illness lightly or if you do not apply the right treatment, you will face an irreparable situation. Have you found the accurate source of your problem?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필라델피아교회, 조병우(PA)  
남부플로리다 KUMC, 이철구(F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들을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Only if you could hear, you could live

1995년 10월에 있었던 미국 항공모함과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 경비 당국 사이에 있었던 무선 교신 내용입니다. 태평양 철책 같은 어둠 속을 향해하는 전함의 함장에게 갑자기 눈앞에 밝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향해하다가는 충돌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 함장은 급히 무전으로 상대편 선박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급 상황이다! 동쪽으로 15도 돌려라” - “그럴 수 없소. 당신들이 항로를 서쪽으로 15도 돌리시오” 전함과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리다간 정말 충돌할 상황이기에 다급해진 함장은 소리치며 엄포를 놓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그러니 어서 항로를 변경하라!” 그러자 “저는 이등병이지만 변경할 수 없으니 함장님께서 변경하십시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함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항공모함이란 말이다! 당장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바로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함장님, 여기는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라고 합니다. (16-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마비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This is an incident involving radio communication between a U.S. aircraft carrier and Canadian Coast Guard on the Newfoundland shore in October 1995.

“In front of the captain of an U.S. aircraft carrier that was sailing in the darkness in the Atlantic Ocean a bright light suddenly appeared. If the aircraft carrier maintained the course it was bound to collide with the bright subject so the Captain sent an emergency radio signal to the approaching ship. “Emergency! Turn to the east 15 degrees.” ... To this, a prompt reply came back, “We cannot. You turn to the west 15 degrees.” The aircraft carrier and bright light subject were getting closer to each other and they were facing imminent danger of colliding, so the nervous Captain screamed, “I am a Navy captain! I am ordering you to change course immediately.” Then a reply came back, “I am only a corporal but I cannot change course, so Captain, you should change course.” The Captain is now furious and sent this ultimatum, “This is an aircraft carrier! Change the course immediately!” Then a reply came back immediately; “So what, Captain, this is a lighthouse!”

How long and how many times did God ask Israel? But the Israelites replied, “We will not walk in it” and “We will not listen.” (vs. 16-17) The people of Israel refused to listen to God and turned away from God because of their wickedness and hardened conscience. What about us? Do we not want the world to change to accommodate our self-centeredness? God should be the center of your univers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8 OCT  
목 Thu

##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Jeremiah's  
Temple Serm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7장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본문의 배경은 B.C. 609년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전한 내용이다.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다.

### 예레미야 7:3-15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8**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15**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dates to B.C. 609 shortly after Jehoiakim was made king and the prophet Jeremiah came to the Temple of the LORD to deliver the message of God. Jeremiah reminded the people who came to the Temple to worship of their sins and delivered the message that promised them a comfortable life by letting them remain in their own land, if they repented and returned to God.

### Jeremiah 7:3-15

**3**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Amend your ways and your deeds, and I will let you dwell in this place.

**4** Do not trust in these deceptive words: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the temple of the LORD.'

**5** "For if you truly amend your ways and your deeds, if you truly execute justice one with another,

**6** if you do not oppress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or the widow, or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and if you do not go after other gods to your own harm,

**7** then I will let you dwell in this place, in the land that I gave of old to your fathers forever.

**8** "Behold, you trust in deceptive words to no avail.

**9** Will you steal, murder, commit adultery, swear falsely, make offerings to Baal, and go after other gods that you have not known,

**10** and then come and stand before me in this house, which is called by my name, and say, 'We are delivered!'--only to go on doing all these abominations?

**11** Has this house, which is called by my name, become a den of robbers in your eyes? Behold, I myself have seen it, declares the LORD.

**12** Go now to my place that was in Shiloh, where I made my name dwell at first, and see what I did to it because of the evil of my people Israel.

**13** And now, because you have done all these things, declares the LORD, and when I spoke to you persistently you did not listen, and when I called you, you did not answer,

**14** therefore I will do to the house that is called by my name, and in which you trust, and to the place that I gave to you and to your fathers, as I did to Shiloh.

**15** And I will cast you out of my sight, as I cast out all your kinsmen, all the offspring of Ephraim.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성전에만 오면 거룩해진다고 여겼던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5-6)

What is the Word of God to those who assumed that just coming to the Temple was good enough to be holy? (vs. 5-6)

참된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As a true worshiper, what can I do for this worl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유혁재(F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예레미야는 주의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전하는 말씀은 “모든 악한 행실을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행실”이 이루어진 곳이 결코 성전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전 밖에서 사회적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오는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 단순한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 원칙과 사회 신조를 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온 인류와 세계가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정의가 구현되도록 헌신하겠다는 신앙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감리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Jeremiah proclaimed the Word of God at the entrance gate of the Temple to the people who came to worship the LORD. His first words are not to believe in the lie, “This is the temple of the Lord.” He continues by saying, “Really change your evil ways and actions.” More specifically, they should not oppress the alien, the fatherless, or the widow and should not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and they should not follow other god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is point. “The evil ways and actions of Israel” most likely did not take place at the Temple. Here the LORD was criticizing the two-faced people who committed socially unrighteous and evil actions outside the Temple and yet came to the Temple to carry out religious rituals.

Our UMC denomination has maintained deep interest in social issues from its inception. The founder, Rev. John Wesley, believed that “born again” Christians was not simply a change of mind but transformation of life manifested. The UMC has developed social doctrines and social creeds and declared a confession of faith to pray for and to promote the divine righteousness to prevail for the peace and freedom of the world and mankind over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lease bear on your shoulders the role of the light and salt of this world as a Methodist toda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9 OCT  
금 Fri

## 하나님의 눈물 Tears of Go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8-9장



새413장(통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눈물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 예레미야 9:17-26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18**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9**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라 함이로다

**20** 부녀들이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21**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2**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쩍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 Reading insight

In spite of God's words to repent of the nominal life of faith, the Israelites insisted that it was all God's fault. Jeremiah shed tears and delivered God's heart to the people. These tears are God's tears that have no choice but to judge the Israelites who do not respond, no matter how God calls them.

### Jeremiah 9:17-26

**17** Thus says the LORD of hosts: "Consider, and call for the mourning women to come; send for the skillful women to come;

**18** let them make haste and raise a wailing over us, that our eyes may run down with tears and our eyelids flow with water.

**19** For a sound of wailing is heard from Zion: 'How we are ruined! We are utterly shamed, because we have left the land, because they have cast down our dwellings.'"

**20** Hear, O women, the word of the LORD, and let your ear receive the word of his mouth; teach to your daughters a lament, and each to her neighbor a dirge.

**21** For death has come up into our windows; it has entered our palaces, cutting off the children from the streets and the young men from the squares.

**22** Speak, "Thus declares the LORD: 'The dead bodies of men shall fall like dung upon the open field, like sheaves after the reaper, and none shall gather them.'"

**23** Thus says the LORD: "Let not the wise man boast in his wisdom, let not the mighty man boast in his might, let not the rich man boast in his riches,

**24** but let him who boasts boast in this,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that I am the LORD who practices steadfast love,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For in these things I delight, declares the LORD."

**25** "Behol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punish all those who are circumcised merely in the flesh--

**26** Egypt, Judah, Edom, the sons of Ammon, Moab, and all who dwell in the desert who cut the corners of their hair, for all these nations are uncircumcised, and all the house of Israel are uncircumcised in heart."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으로 말씀하신 두가지는 무엇입니까? (9장 23-26)

What are the two things that God said should be imbued in the minds of the Israelites as the sins of the people of Israel were exposed by God? (9:23-26)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Please write out what you know "about Go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탐파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FL)  
포트피어스 KUMC, 김선웅(F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To know God is the best thing

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미니 밴에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집 안에서 열심히 휴가에 필요한 짐을 꾸려 차에 싣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보고는 반갑게 인사하며 묻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니?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갈 거니? 어디에서 저녁을 먹을 거니?”

아이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는 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먹고 자는 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하나, 그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랑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엄마 아빠는 그들을(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먹여 줄 것이고, 목적지에 데려다줄 것이고, 그 밖에도 다 해주실 것입니다.

멸망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One family was preparing for summer vacation. Children already took seats in the minivan. Mom and dad were busy loading the minivan with necessities from the house. At this moment a woman passing by peaked inside the minivan and began talking to the children. “Where are you going, children? Which highway are you going to take? Where are you going to have your supper?” But the children consistently said that they did not know. Indeed, they did not know where they were going. They did not know which roads they were taking nor where they would stop to eat or sleep. But they had no worries. You know why.

One thing the children knew was that their mom/dad were going with them. Everything else was unimportant to the children. It was okay not to know anything else. What was important was the fact that their mom and dad were going with them. They knew that their mom and dad would protect them, feed them, deliver them to the final destination, and do whatever they needed. If the people of Israel, who did not realize even when their destruction was near at hand and still did not seek God, understood the mercy of God who shed tears, how wonderful would it have been? There is nothing in our lives that is not touched by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0 OCT  
토 Sat

##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The teaching of idols is only about tree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0장



새265장(통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행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두려움 때문이고, 또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 예레미야 10:6-16

**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8**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10**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2**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 Reading insight

The reason why the people of Israel learned many ways of other nations and followed their customs was their fear and desire to be blessed. But what they must understand is the fact that the LORD our God is the only true God.

### Jeremiah 10:6-16

**6** There is none like you, O LORD; you are great, and your name is great in might.

**7** Who would not fear you, O King of the nations? For this is your due; for among all the wise ones of the nations and in all their kingdoms there is none like you.

**8** They are both stupid and foolish; the instruction of idols is but wood!

**9** Beaten silver is brought from Tarshish, and gold from Uphaz. They are the work of the craftsman and of the hands of the goldsmith; their clothing is violet and purple; they are all the work of skilled men.

**10** But the LORD is the true God; he is the living God and the everlasting King. At his wrath the earth quakes, and the nations cannot endure his indignation.

**11** Thus shall you say to them: "The gods who did not m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shall perish from the earth and from under the heavens."

**12** It is he who made the earth by his power, who established the world by his wisdom, and by his understanding stretched out the heavens.

**13** When he utters his voice, there is a tumult of waters in the heavens, and he makes the mist r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He makes lightning for the rain, and he brings forth the wind from his storehouses.

**14** Every man is stupid and without knowledge; every goldsmith is put to shame by his idols, for his images are false, and there is no breath in them.

**15** They are worthless, a work of delusion; at the time of their punishment they shall perish.

**16** Not like these is he who is the portion of Jacob, for he is the one who formed all things, and Israel is the tribe of his inheritance; 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12-13, 16절)

In Today's scripture how was  
God introduced?

(vs. 12-13, 16)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익숙함을  
더 신뢰한 적은 없지요? 당신  
의 안전을 보장해 줄 세상의 요새  
는 무엇입니까?

Have you ever trusted certain  
worldly acquaintances more  
than God? What are your  
worldly fortresses that could  
provide your security?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다시 시작하자

Let us begin again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예품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민족의 우상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곧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유다 백성을 향해 짐을 싸라고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바라지만,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뽑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The people of Israel worshiped idols. Idols are man-made and symbols of our greed. They did not understand their foolishness in worshipping an idol which is a man-made thing instead of the true God. Jeremiah compares the idols of the Gentiles with the true God of Israel and confesses that only the living God is the eternal king. He proclaims that the idols will soon disappear and only God will rule this world to eternity. And now the Judeans, who are to be attacked by Babylon, are asked to pack to leave.

The people of Judah now long for the redemption of God again but God demands that the roots of the sins should be uprooted and declares "let us begin again". But the people of Judah lament because it means that they have to give up everything. What are the things that we have to give up? What are those things that we place above God without even realizing? I pray that our faith and our belief will be solely steered by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홍삼열 목사(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CA)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자성(自省)하고 있다. 왜 기독교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현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 사회가 점점 부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더하여 도덕적 타락을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부해지면 생각과 삶이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에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역사상 이런 사이클과는 별도로 한 번도 침체기를 겪지 않은 종교집단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도 현재 일시적 혹은 장기적 침체기를 겪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는 한국 특유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복주의(祈福主義)를 추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 부정적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생활이 어렵고 이성적 사고가 덜 발달된 상태에서는 샤머니즘에 기초한 기복주의가 사람들에게 큰 매력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생활이 편해지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 때는 더 이상 기복주의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기복주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진실한 기독교인, 성서적 기독교인은 세속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심지어는 반(反) 세속적인 하늘의 복만을 추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속의 복을

지향하는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믿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들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기독교의 샤머니즘적 특성을 지적한 분석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의 기독교에 비해서 왜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급 쇠락하는 현상을 보이는지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복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예를 들어 자녀의 복, 재산의 복, 장수의 복과 같은 세속적인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

성경을 읽어 보면 성숙한 신앙의 사람도 세속적인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예들을 많이 발견한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세기 12:2)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영적인 복뿐일까? 큰 민족이 되는 것,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육적인 복과는 상관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그에게 약속된 복은 당연히 육적인 복, 특히 자녀의 복과 재산의 복을 포함한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나열되어 나오는데 당연히 이 목록에는 세속적인 복이 포함된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28:4-5)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28:7)

그러면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신약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육적인 것 곧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9-11)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기도할 때 그것만 구하면 곤란하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맞다.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인 복만 구해 야지 세속적인 복은 구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성서적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복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에서 벗어난 복의 추구를 정죄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기복신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재산, 건강,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면 떳떳하지 못하게 혹은 송구스럽게 기도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영적으로만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겠는가? 그런 아버지는 없다. 자녀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왕이면 세상적으로도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욱 그러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후반부는 우리의 요구에 관한 기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반부는 신령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세속적인 기도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여러 일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복을 위해 구하는 기도도 목적이 올바르면 신령한 기도 즉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31절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식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단 이것이 나쁜 종류의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 그 목적이 올바라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 Memo

---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

12 OCT  
월 Mon

## 여호와께서 이르신 언약의 말씀

The promise of  
the LORD our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1장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재앙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신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기 보다 바알을 섬기며 국력이 강하고 부유해 보이는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거짓 소망을 붙잡고 부요해지길 바랐지만, 결국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예레미야 11:1-11

-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 5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 7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 8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 9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 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 Reading insight

The warning of God against Judah continued. A calamity was declared and God said that He would not take care of them anymore. Israel refused to look for the hope from God but inclined to serve Baal and envied those surrounding nations that appeared to have a mighty army and wealth. Ultimately, Israel clung to false hope and wished to become rich but they could not escape from their anxiety.

## Jeremiah 11:1-11

- 1**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 2** “Hear the words of this covenant, and speak to the men of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 3** You shall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Cursed be the man who does not hear the words of this covenant
- 4** that I commanded your fathers when I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from the iron furnace, saying, Listen to my voice, and do all that I command you. So shall you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 5** that I may confirm the oath that I swore to your fathers, to give them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s at this day.” Then I answered, “So be it, LORD.”
- 6** And the LORD said to me, “Proclaim all these words in the cities of Judah and in the streets of Jerusalem: Hear the words of this covenant and do them.
- 7** For I solemnly warned your fathers when I brought them up out of the land of Egypt, warning them persistently, even to this day, saying, Obey my voice.
- 8** Yet they did not obey or incline their ear, but everyone walked in the stubbornness of his evil heart. Therefore I brought upon them all the words of this covenant, which I commanded them to do, but they did not.”
- 9** Again the LORD said to me, “A conspiracy exists among the men of Judah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 10** They have turned back to the iniquities of their forefathers, who refused to hear my words. They have gone after other gods to serve them. The house of Israel and the house of Judah have broken my covenant that I made with their fathers.
- 11**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Behold, I am bringing disaster upon them that they cannot escape. Though they cry to me, I will not listen to them.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4-5절)

What are the terms of the command given by God to Israel? (vs. 4-5)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신의 삶과, 가정, 일터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How do the terms of the command by God apply to your life, family, and workplace now?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 UMC, 김다위(KS)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I cannot trust my own mind

사도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를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어리석고, 부패했으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알고 변덕스러울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빌 1:8)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음에도 여러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 안의 시기과 질투,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거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놓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마음을 믿지 마시다. 아니, 취하지도 마시다.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Why does Apostle Paul admonish the saints in Philippi,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Maybe because he knew that we would act according to our own will and run into problems whenever we acted according to our own will. Our minds are so foolish, corrupt, and untrustworthy. Our feelings are too shallow, whimsical, and basically self-centered. That is why Apostle Paul declares to the saints in Philippi, “God can testify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Philippians 1:8) He confesses that his agape love for the believers in Philippi is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Though I am a clergy, I know how my mind wavers under so many different circumstances. At times, I am affected by jealousy, greed, anger, and selfish desire wriggling inside of me. If I do not lay down these feelings in front of Jesus Christ whenever it happens, I would not be able to stand here today. Dea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let us not trust our own mind coming from inside of us. Let us not accept it either. What we must contain is only the mind of Jesus Chris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예레미야의 질문

Jeremiah's Question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2장



새407장(통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찌 악한자가 형통하며 반역자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해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이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그 문제를 더 명확히 보라 하십니다.

### 예레미야 12:1-11

- 1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 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 이까
-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 3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 4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 5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 6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 7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 8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으로라
- 9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 10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뭇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 11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으로라

## Reading insight

Jeremiah asks God that if Thou are righteous, how can the wicked prosper and the rebels be at peace? God does not respond to the question. God says that the problem of evil is more serious than he thinks, and he needs to look at it more clearly.

### Jeremiah 12:1-11

**1** Righteous are you, O LORD, when I complain to you; yet I would plead my case before you. Why does the way of the wicked prosper? Why do all who are treacherous thrive?

**2** You plant them, and they take root; they grow and produce fruit; you are near in their mouth and far from their heart.

**3** But you, O LORD, know me; you see me, and test my heart toward you. Pull them out like sheep for the slaughter, and set them apart for the day of slaughter.

**4** How long will the land mourn and the grass of every field wither? For the evil of those who dwell in it the beasts and the birds are swept away, because they said, "He will not see our latter end."

**5** "If you have raced with men on foot, and they have wearied you, how will you compete with horses? And if in a safe land you are so trusting, what will you do in the thicket of the Jordan?

**6** For even your brothers and the house of your father, even they have dealt treacherously with you; they are in full cry after you; do not believe them, though they speak friendly words to you."

**7** "I have forsaken my house; I have abandoned my heritage; I have given the beloved of my soul into the hands of her enemies.

**8** My heritage has become to me like a lion in the forest; she has lifted up her voice against me; therefore I hate her.

**9** Is my heritage to me like a hyena's lair? Are the birds of prey against her all around? Go, assemble all the wild beasts; bring them to devour.

**10** Many shepherds have destroyed my vineyard; they have trampled down my portion; they have made my pleasant portion a desolate wilderness.

**11** They have made it a desolation; desolate, it mourns to me. The whole land is made desolate, but no man lays it to heart.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5-6절)  
What does God say about Jeremiah's question?  
(vs. 5-6)

악으로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What should we do when suffering from evil? Think of Jesus' words.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릉재(KS)  
가득한교회, 이강(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God, how can this be?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질문은, 우리들 삶 속에서 늘 외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늘 고난과 고통이 따르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 해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오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In today's text, Jeremiah's question to God is an issue we always struggle with in our lives. It seems that the wicked in the world are doing well, and the people without faith live better. However, faithful believers are always suffering and deteriorating. How can this be? No matter how wicked Israel i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God will raise up unbelievers to destroy Israel.

But what is clear is that God is still working by means of justice and fairness. When people watch the process of God's restoration of the fallen, they will come back to God. So, there is God's plan of salvation to make everyone a people of God. And everything will be quietly restored to God's grace. Eventually God will destroy evil. I pray that you are at peace in God's grace toda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4 OCT  
수 Wed

## 썩은 허리띠 Rotten Belt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3장



새264장(통198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허리띠'와 '포도주 가죽부대'의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던 남유다는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 예레미야 13:1-9, 12-14

-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 2 내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 3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4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 5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 6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 7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 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 12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 13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 14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Reading insight

God tells us how serious the sins of Jerusalem and Judah are through the parables of the 'linen belt' and 'wineskin'. Eventually, Judah, a special people of God, will become Babylonian prisoners for their pride and idolatry.

### Jeremiah 13:1–9, 12–14

**1** Thus says the LORD to me, “Go and buy a linen loincloth and put it around your waist, and do not dip it in water.”

**2** So I bought a loinclot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and put it around my waist.

**3**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a second time,

**4** “Take the loincloth that you have bought, which is around your waist, and arise, go to the Euphrates and hide it there in a cleft of the rock.”

**5** So I went and hid it by the Euphrates, as the LORD commanded me.

**6** And after many days the LORD said to me, “Arise, go to the Euphrates, and take from there the loincloth that I commanded you to hide there.”

**7** Then I went to the Euphrates, and dug, and I took the loincloth from the place where I had hidden it. And behold, the loincloth was spoiled; it was good for nothing.

**8**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9** “Thus says the LORD: Even so will I spoil the pride of Judah and the great pride of Jerusalem.

**12** “You shall speak to them this word: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Every jar shall be filled with wine.”’ And they will say to you, ‘Do we not indeed know that every jar will be filled with wine?’

**13** Then you shall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Behold, I will fill with drunkenness all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the kings who sit on David’s throne, the priests, the prophets, and all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14** And I will dash them one against another, fathers and sons together,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pity or spare or have compassion, that I should not destroy them.”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허리띠’와 ‘포도주 가죽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11, 13–14)

What does God say through ‘linen belt’ and ‘wineskin’? (vs. 9–11, 13–14)

마음의 완악함(교만)은 결국 우리를 죄의 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The hardening of the heart (pride) eventually leads us back to the slavery of sin. What pride is driving you away from Go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조영진(NJ)  
그레이스벤엘교회, 장학범(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I am satisfied with God alone.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묻었던 베 띠를 파내어 봅니다. 파낸 그 벨트는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고 너무 더러워 허리에 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문화(세상적인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교만과 패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좇고, 마음에 나오는 고집대로 주장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오히려 부패된 세상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15)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교만은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을 벗어나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Jeremiah digs out the linen belt that was buried according to God's instruction. The belt that was dug is already rotten, stinks, and so dirty that it cannot be worn around the waist. This demonstrates Israel's pride and downfall because they embraced Canaanite culture (worldly culture). The Israelites followed the logic of the world rather than the Word, insisted on the stubbornness of their hearts, and abandoned God and served Baal. They were called to resemble God, but lost God's character by the influence of corrupt world. God speaks to them. "Hear and pay attention, do not be arrogant, for the Lord has spoken." (15) Israel is destroyed by their pride.

Pride begins with the craving to fulfill my desires and ambitions. If you don't want to be proud, you have to be content. A praise song comes to mind, "When I look at people, when I see the world, I am not satisfied. When I see Him, my God, I will be satisfied." I bless you to be United Methodist parishioners who can be satisfied with God alon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5 OCT  
목 Thu

## 이유있는 고난

Acceptable hardship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4장



새278장(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유다 땅에 큰 가뭄이 임하고 그로 인해 귀인들이나 농부들, 심지어 암사슴마저 자기 새끼를 돌볼 수 없을 지경이 이릅니다. 이에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소리를 들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의 탄원을 올리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지 않습니다.

### 예레미야 14:11-18, 20-21

**11**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3**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8**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20**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 Reading insight

There is a great drought in the land of Judah, so that nobles, farmers, or even deer cannot take care of their young. In response, Jeremiah hears resentment and sighing toward God from the people. Even though he gives a petition of tears to God, but God does not abandon the will of judgment.

### Jeremiah 14:11–18, 20–21

**11** The LORD said to me: “Do not pray for the welfare of this people.

**12** Though they fast, I will not hear their cry, and though they offer burnt offering and grain offering, I will not accept them. But I will consume them by the sword, by famine, and by pestilence.”

**13** Then I said: “Ah, Lord GOD, behold, the prophets say to them, ‘You shall not see the sword, nor shall you have famine, but I will give you assured peace in this place.’”

**14** And the LORD said to me: “The prophets are prophesying lies in my name. I did not send them, nor did I command them or speak to them. They are prophesying to you a lying vision, worthless divination, and the deceit of their own minds.

**15**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concerning the prophets who prophesy in my name although I did not send them, and who say, ‘Sword and famine shall not come upon this land’: By sword and famine those prophets shall be consumed.

**16** And the people to whom they prophesy shall be cast out in the streets of Jerusalem, victims of famine and sword, with none to bury them--them, their wives,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For I will pour out their evil upon them.

**17** “You shall say to them this word: ‘Let my eyes run down with tears night and day, and let them not cease, for the virgin daughter of my people is shattered with a great wound, with a very grievous blow.

**18** If I go out into the field, behold, those pierced by the sword! And if I enter the city, behold, the diseases of famine! For both prophet and priest ply their trade through the land and have no knowledge.’”

**20** We acknowledge our wickedness, O LORD, and the iniquity of our fathers, for we have sinned against you.

**21** Do not spurn us, for your name’s sake; do not dishonor your glorious throne; remember and do not break your covenant with us.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거짓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4–18절)

There is a false prophecy to the people suffering from drought. What is the message of God regarding this? (vs. 14–18)

오늘 본문 20–21절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 세상과 교회, 가정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The prayer of Jeremiah in verses 20–21 of today’s text should be our prayer for the world, the church, and the home. Let’s pray with tears of penance.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뉴저지 KUMC, 박태열(NJ)  
뉴저지연합교회, 고한승(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죄를 고백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Do not confess your sins, but repent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접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이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레 26:39-42) 죄를 고백하는 것과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더라도 여전히 그때의 감정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그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감추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회개)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후 7:10-11, 유진 피터슨, 메시지)

We can see God's grace and love of forgiving and restoring sinners constantly through the Bible, but we can also see God's judgment that we must pay for our sins. If God's judgment is due to sin, then true repentance must undertake. Only then can we recover spiritually again through God's judgment (Leviticus 26:39-42). Confession of sin is clearly different from repentance. Many people can confess their sins to get rid of the pain they are experiencing. Sometimes, even if they confess their sin, they can still conceal it to validate and justify their feelings and actions. This is not repentance.

“Distress that drives us to God does that. It turns us around. It gets us back in the way of salvation. We never regret that kind of pain. But those who let distress drive them away from God are full of regrets, end up on a deathbed of regrets. And now, isn't it wonderful all the ways in which this distress has goaded you closer to God? You're more alive, more concerned, more sensitive, more reverent, more human, more passionate, more responsible. Looked at from any angle, you've come out of this with purity of heart.” (2 Corinthians 7:10-11, The Messag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6 OCT  
금 Fri

##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I am with you  
to protect and  
rescue you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5장



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도 치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네 가지로 심판하실 것인데, 모세와 사무엘이라 할찌라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레미야의 탄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하십니다.

### 예레미야 15:1-3, 16-21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2**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됴므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됴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1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1**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 Reading insight

God is tired too. Now God will judge Judah in four ways, even Moses and Samuel, cannot stop it. Bu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judgment is that still God loves them. In response, Jeremiah declares that if they repent and return, God will save them again.

### Jeremiah 15:1-3, 16-21

**1** Then the LORD said to me, “Though Moses and Samuel stood before me, yet my heart would not turn toward this people. Send them out of my sight, and let them go!

**2** And when they ask you, ‘Where shall we go?’ you shall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Those who are for pestilence, to pestilence, and those who are for the sword, to the sword; those who are for famine, to famine, and those who are for captivity, to captivity.”’

**3** I will appoint over them four kinds of destroyers, declares the LORD: the sword to kill, the dogs to tear,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of the earth to devour and destroy.

**16** Your words were found, and I ate them, and your words became to me a joy and the delight of my heart, for I am called by your name, O LORD, God of hosts.

**17** I did not sit in the company of revelers, nor did I rejoice; I sat alone, because your hand was upon me, for you had filled me with indignation.

**18** Why is my pain unceasing, my wound incurable, refusing to be healed? Will you be to me like a deceitful brook, like waters that fail?

**19**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If you return, I will restore you, and you shall stand before me. If you utter what is precious, and not what is worthless, you shall be as my mouth. They shall turn to you, but you shall not turn to them.

**20** And I will make you to this people a fortified wall of bronze; 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they shall not prevail over you, for I am with you to save you and deliver you, declares the LORD.

**21** I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the wicked, and redeem you from the grasp of the ruthless.”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실 4가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

What are the four ways God will punish Israel? (v. 3)

깨어있는 소수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이 받는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Living as a devoted minority of believers is not easy. Isn't there any disadvantage you suffer because you're living by God's word? Talk to Go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 임희영(NJ)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절, 외로움,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질 만큼 그에게는 울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20-21 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For more than 200 years, God sent nine prophets to the Israelites to speak God's Word. This was because God's people served idols and rejected God. God has been constantly sending messages to them for 200 years. “Judgement is coming soon.” And the sinful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destroyed by Assyria. At this time, People of Judas should have repented of their sins and returned to God, but they also rejected God's messages. Eventually in B.C. 586 both Jerusalem and the temple were destroyed by Babylonia. The prophet Jeremiah was called by God about 40 years before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God called him to the place of “rejection, loneliness, suffering”.

Jeremiah had so many reasons to cry as he was known as the “prophet of tears”. How long did he want to give up? But every time he wanted to give up, he couldn't, because God was with him. “They will fight against you like an attacking army, but I will make you as secure as a fortified wall of bronze. They will not conquer you, for I am with you to protect and rescue you. I, the Lord, have spoken! Yes, I will certainly keep you safe from these wicked men. I will rescue you from their cruel hands.” (vs. 20-21)

God knows what's going on with you. Never give up!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7 OCT  
토 Sat

##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God who Judges  
and God who Save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6장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땅에서는 자녀를 낳은 어머니 아비, 그리고 자식들까지 모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은자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 예레미야 16:14-21

**14**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16**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7**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19**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 Reading insight

God tells Jeremiah that when God's judgment comes upon the people, mothers and fathers and even their children will suffer a terrible death. Moreover, there will be no one to mourn or show sympathy. Jeremiah inquires God on behalf of the people why God is doing this.

### Jeremiah 16:14-21

**14** “Therefore, behol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t shall no longer be said, ‘As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the people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15** but ‘As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the people of Israel out of the north country and out of all the countries where he had driven them.’ For I will bring them back to their own land that I gave to their fathers.

**16** “Behold, I am sending for many fishers, declares the LORD, and they shall catch them. And afterward I will send for many hunters, and they shall hunt them from every mountain and every hill, and out of the clefts of the rocks.

**17** For my eyes are on all their ways. They are not hidden from me, nor is their iniquity concealed from my eyes.

**18** But first I will doubly repay their iniquity and their sin, because they have polluted my land with the carcasses of their detestable idols, and have filled my inheritance with their abominations.”

**19** O LORD, my strength and my stronghold, my refuge in the day of trouble, to you shall the nations co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and say: “Our fathers have inherited nothing but lies, worthless things in which there is no profit.

**20** Can man make for himself gods? Such are not gods!”

**21** “Therefore, behold, I will make them know, this once I will make them know my power and my might, and they shall know that my name is the LORD.”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우리의 죄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21절)

What is God's true intention in judging our sins firmly? (v. 21)

잘못한 자녀를 꾸짖는 부모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Think about the heart of loving parents who discipline their child and apply that to consider God's heart for you.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최상훈(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의 본심

God's True Intention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게 될 때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 묻어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땅에 고통하는 소리도 흥겨워하는 소리도 모두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떠나신 건가요? 이렇게 끝내시려는 걸까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징계하심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구원 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입니다.

God's judgment on the people of Judah is very harsh. God tells Jeremiah that people should not get married nor have children. It is because their children will die of deadly diseases and there will be no one to mourn for them or bury them. God also tells Jeremiah that people should not go to the house where there is funeral as well as to the house where there is feasting. God says that He will bring an end to the sounds of joy and gladness. Jeremiah then asks God on behalf of the people “Why has the Lord decreed such a great disaster on us? What wrong have we done?”

Has God really given up on the people? Will God really bring an end to everything? The answer is “No.” In verse 14, we read, “However, the days are coming.” God's plan is to judge people so that, through judgment, people will come to know that He is truly God. Although this may not be how God normally works, it is one way that God uses to save and redeem us because He loves u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복음의 참맛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FL)

저는 최근 새우 알러지가 생겨서 조심하긴 하나, 평소 음식을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미식가들이라 하는 이들이 몇 시간 씩 차 타고 가서 먹는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고 맛집 앞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유난 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가 지난 캘리포니아 방문 때, 처음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식당을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일 낮 시간임에도 줄을 서야 하는 그 식당에서 기꺼이 줄을 서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곳 메뉴는 단순했지만, 그 맛은 정말 깊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거리를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 전에 아테네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헬라철학의 도시로,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 지식을 첨가해 맛을 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맛을 내면 그곳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행 17:32).

한 마디로 바울이 거기서 전한 복음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잡탕이 되어 완전 실패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밋게

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복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아덴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성령님은 그를 성숙케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안경뿐입니다!> 우리 고국에서 언젠가 광고대상을 받은 문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안경사가 신뢰가 갑니다. 다른 잡다한 설명 보다 이 확신 있는 한마디가 사람들을 끄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 이슈로 복잡하게 얽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생각을 단순화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생각을 정리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는 아덴의 실패를 거울삼아 고린도로 옮겨와서 선교할 때는 단순화한 생각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더 높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되니 유익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약 50%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4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오직 10%의 사람들 만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하니, 결국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19 OCT  
월 Mon

## 하나님의 시선 God's Gaze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7장



새273장(통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했던 유다의 마음에 우상으로 인한 죄악이 새겨졌습니다. 이 심각한 죄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며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 예레미야 17:5-14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10**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2**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 Reading insight

The sin of Judah is that their hearts are overcome by idolatry instead of God's Word. In the face of God's judgment that will come upon the people, Jeremiah asks for mercy. God tells Jeremiah to keep the Sabbath day and recover the life of making sacrifices and offerings.

### Jeremiah 17:5-14

**5** Thus says the LORD: "Cursed is the man who trusts in man and makes flesh his strength, whose heart turns away from the LORD.

**6** He is like a shrub in the desert, and shall not see any good come. He shall dwell in the parched places of the wilderness, in an uninhabited salt land.

**7**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trust is the LORD.

**8**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and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for its leaves remain green, and is not anxious in the year of drought, for it does not cease to bear fruit."

**9**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10** "I the LORD search the heart and test the mind, to give every man according to his ways, according to the fruit of his deeds."

**11** Like the partridge that gathers a brood that she did not hatch, so is he who gets riches but not by justice; in the midst of his days they will leave him, and at his end he will be a fool.

**12** A glorious throne set on high from the beginning is the place of our sanctuary.

**13** O LORD, the hope of Israel, all who forsake you shall be put to shame; those who turn away from you shall be written in the earth, for they have forsaken the LORD, the fountain of living water.

**14** Heal me, O LORD, and I shall be healed; save me, and I shall be saved, for you are my praise.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7-8절)

What blessings will those who trust in the Lord experience? (vs. 7-8)

예레미야는 14절에서 하나님을 능동형으로 자신을 수동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고백해 보십시오.

Jeremiah makes a "passive" confession as opposed to "active" confession in v. 14. Could you make your own similar confession to Go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꾸뻔씨의 행복 여행

Hector and the Search for Happiness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프랑수아 를로르가 소설 형식으로 쓴 일상의 행복론 “꾸뻔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행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소설입니다. 이 책에는 23가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 9가지만 소개합니다.

1.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2.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3.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4.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5.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6.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7.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8.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9.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Hector and the Search for Happiness” is a novel written by a French psychologist Francois Lelord about finding happiness in everyday life. It tells a story about a psychologist embarking on a trip in search of true meaning of happiness. This book shares 23 secrets to happiness, nine of which are as follows:

1. The first secret to happiness is not to compare one's self to others.
2. Happiness is sometimes found unexpectedly.
3. Many people think that happiness is found only in the future.
4. Many people think their happiness will grow more with wealth and importance.
5. Happiness is taking a walk in an unknown beautiful forest.
6. Happiness is not a goal to be achieved.
7. Happiness is being together with the person you love.
8. Unhappiness is breaking up with the person you love.
9. Happiness is knowing that all the needs in your family has been met.

There is really nothing new here. Being content and thankful with what you have is the secret to happiness. “Everything is God's gra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0 OCT  
화 Tue

##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God the Potter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8장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18-20장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기장이의 비유와 깨어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백성을 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 예레미야 18:1-8, 18-20

-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 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 5 그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 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 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 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 19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 20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 Reading insight

Jeremiah Chapter 18–20 contains God’s words that came to Jeremiah for the eighth time in which God’s absolute sovereignty over all nations and people is described using the metaphor of the potter and a broken clay jar. It also contains the judgment for the people of Judah who sinned against God. When the people hear the indictment of their sins, they try to get rid of Jeremiah.

### Jeremiah 18:1–8, 18–20

**1**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2** “Arise, and go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there I will let you hear my words.”

**3** So I went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there he was working at his wheel.

**4** And the vessel he was making of clay was spoiled in the potter’s hand, and he reworked it into another vessel, as it seemed good to the potter to do.

**5**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6** “O house of Israel, can I not do with you as this potter has done? declares the LORD. Behold, like the clay in the potter’s hand, so are you in my hand, O house of Israel.

**7** If at any time I declare concerning a nation or a kingdom, that I will pluck up and break down and destroy it,

**8** and if that nation, concerning which I have spoken, turns from its evil, I will relent of the disaster that I intended to do to it.

**18** Then they said, “Come, let us make plots against Jeremiah, for the law shall not perish from the priest, nor counsel from the wise, nor the word from the prophet. Come, let us strike him with the tongue, and let us not pay attention to any of his words.”

**19** Hear me, O LORD, and listen to the voice of my adversaries.

**20** Should good be repaid with evil? Yet they have dug a pit for my life. Remember how I stood before you to speak good for them, to turn away your wrath from them.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폭로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8절)

What do the people of Israel try to do to Jeremiah who pointed out and revealed their sins against God? (v. 18)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의 모습을 고백해 보십시오.

The evil in the hearts of the people of Israel is evident in their attempt to pay back good with evil. What evil is in our hearts?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펜젤라기념내리 KUMC, 조민호(NJ)  
제자교회, 이영기(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토기장이이 원하는대로

Whatever the Potter Wants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침 토기장이가 만들던 토기가 손에서 터집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는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긴 항아리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시작한 토기라 할지라도 넓은 접시 모양의 토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길 밖에 머문다면 그것은 진흙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들이 제자리에 있으니 참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리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God brings Jeremiah to the potter's house to give him a message. As the potter works with a pot, it breaks down in potter's hands. The potter then forms it into another pot, shaping seemed best to him. The pot can be created only by the hands of the potter. And the clay that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made into a tall jar can be changed and created into a wide bowl. Away from the hands of the potter, the clay will simply remain as nothing more than clay.

Similarly, God desires for us to remain in God's hands. When God saw all that God had made in their places, God saw that it was good. Are in places of life that pleases God? It is written in Romans 12:3, “For by the grace given me I say to every one of you: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faith God has distributed to each of you.”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1 OCT  
수 Wed

##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다

Committing All  
Things to the Lor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19-20장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끼리어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19장은 깨어진 옹기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20장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바스홀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며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박해하며, 이에 상반되는 거짓된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 예레미야 20:1-11

- 1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 2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 3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빔이라 하시느니라
-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갈로 죽이리라
- 5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 6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 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 8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 10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후사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 11 그러하오나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 Reading insight

While Chapter 19 describes God's firm intention of judging Judah through the metaphor of a broken pot, Chapter 20 describes the response of the people of Judah after they hear the warning of God's judgment. After hearing the prophecy from Jeremiah regarding the fall of Judah by Babylon, the priest Pashhur persecutes Jeremiah and gives to the people a contradicting and false prophecy.

## Jeremiah 20:1-11

**1** Now Pashhur the priest, the son of Immer, who was chief officer in the house of the LORD, heard Jeremiah prophesying these things.

**2** Then Pashhur beat Jeremiah the prophet, and put him in the stocks that were in the upper Benjamin Gate of the house of the LORD.

**3** The next day, when Pashhur released Jeremiah from the stocks, Jeremiah said to him, "The LORD does not call your name Pashhur, but Terror On Every Side.

**4** For thus says the LORD: Behold, I will make you a terror to yourself and to all your friends. They shall fall by the sword of their enemies while you look on. And I will give all Judah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Babylon. He shall carry them captive to Babylon, and shall strike them down with the sword.

**5** Moreover, I will give all the wealth of the city, all its gains, all its prized belongings, and all the treasures of the kings of Judah into the hand of their enemies, who shall plunder them and seize them and carry them to Babylon.

**6** And you, Pashhur, and all who dwell in your house, shall go into captivity. To Babylon you shall go, and there you shall die, and there you shall be buried, you and all your friends, to whom you have prophesied falsely."

**7** O LORD, you have deceived me, and I was deceived; you are stronger than I, and you have prevailed. I have become a laughingstock all the day; everyone mocks me.

**8** For whenever I speak, I cry out, I shout, "Violence and destruction!" For the word of the LORD has become for me a reproach and derision all day long.

**9** If I say, "I will not mention him, or speak any more in his name," there is in my heart as it were a burning fire shut up in my bones, and I am weary with holding it in, and I cannot.

**10** For I hear many whispering. Terror is on every side! "Denounce him! Let us denounce him!" say all my close friends, watching for my fall. "Perhaps he will be deceived; then we can overcome him and take our revenge on him."

**11** But the LORD is with me as a dread warrior; therefore my persecutors will stumble; they will not overcome me. They will be greatly shamed, for they will not succeed. Their eternal dishonor will never be forgotten.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스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  
까? (4-6 절)

How did God judge Pashhur  
who persecuted Jeremiah?  
(vs. 4-6)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The real shame for Christians  
is to live their lives without  
following God's Word. What  
do you consider to be  
shameful in your own life?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주님의 은혜교회, 최준호(NJ)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그리스도인의 수치

The Shame of Christians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뜨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듯이 유다왕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며 자신이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7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반발과 박해,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한국의 이재철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수모를 겪고 모함당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수치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수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Just as there is no way of turning back once the potter shatters the pot, there is no turning back also for Judah. They were stubborn and did not listen to God. They refused to turn to God. Even though Jeremiah cried out that they should repent and return to God, no one paid any attention to him. Instead, they argued that God would never judge them and they only followed what they wanted to hear from false prophets. And they tried to get rid of Jeremiah who spoke of judgment. So, Jeremiah cried out to God in frustration, “You deceived me, Lord, and I was deceived; you overpowered me and prevailed. I am ridiculed all day long; everyone mocks me (v. 7).”

Jeremiah tried to deliver God’s message to the people. But the only response he got from them was resistance, persecution, ridicule and mockery. Pastor Jae Lee once said, “There is nothing shameful about Christians experiencing condemnation and entrapment. The real shame for Christians is to declare that they are God’s people saved by grace only to live lives that show no relevance to God’s Word other than going to church on Sunday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2 OCT  
목 Thu

##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The way of life and  
the way of death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1장



새280장(통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드기야 왕이 바스홀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간구해 달라 부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를 치실 것이라 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됨을 분명히 하십니다.

### 예레미야 21:4-13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5**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느니라

**9**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10**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11**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와 말을 들으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를 관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

**1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 Reading insight

King Zedekiah sends Pashhur and Zephaniah to Jeremiah to ask God to save them from the threat of Babylon, but instead God will punish Judah. God makes it clear that Judah is not destroyed by Babylon, but by God's wrath of their sins.

### Jeremiah 21:4-13

**4** “Thus you shall say to Zedekiah,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hold, I will turn back the weapons of war that are in your hands and with which you are fighting against the king of Babylon and against the Chaldeans who are besieging you outside the walls. And I will bring them together into the midst of this city.

**5** I myself will fight against you with outstretched hand and strong arm, in anger and in fury and in great wrath.

**6** And I will strike down the inhabitants of this city, both man and beast. They shall die of a great pestilence.

**7** Afterward, declares the LORD, I will give Zedekiah king of Judah and his servants and the people in this city who survive the pestilence, sword, and famine into the hand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nd into the hand of their enemies, into the hand of those who seek their lives. He shall strike them down with the edge of the sword. He shall not pity them or spare them or have compassion.’

**8** “And to this people you shall say: ‘Thus says the LORD: Behold, I set before you the way of life and the way of death.

**9** He who stays in this city shall die by the sword, by famine, and by pestilence, but he who goes out and surrenders to the Chaldeans who are besieging you shall live and shall have his life as a prize of war.

**10** For I have set my face against this city for harm and not for good, declares the LORD: it shall be given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Babylon, and he shall burn it with fire.’

**11** “And to the house of the king of Judah say, ‘Hear the word of the LORD,

**12** O house of David! Thus says the LORD: “Execute justice in the morning, and deliver from the hand of the oppressor him who has been robbed, lest my wrath go forth like fire, and burn with none to quench it, because of your evil deeds.”

**13** “Behold, I am against you, O inhabitant of the valley, O rock of the plain, declares the LORD; you who say, ‘Who shall come down against us, or who shall enter our habitations?’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회개할 마음이 없이 도움만을 간구하는 유다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10)

What does God say to the people of Judah who ask only for help without repentance? (vs. 4-10)

당신은 무서웠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Do you remember fearing God?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코너스톤교회, 정희섭(NJ)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 이재덕(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아빠, 무서워!

Dad, I'm scared!

제게는 사랑하는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대학생, 고등 학생으로 훌쩍 커버렸지만, 여전히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최고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확실히 긴 세대입니다. 이제 팔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면 괜히 마음이 찡해지는 감사함이 크게 다가오지만, 어렸을 적의 아버지 에 대한 기억은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편하고 재미있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인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확실히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습니다. 목욕도 아빠랑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되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야단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강아지를 만지며 놀던 막내딸이 손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 것을 혼냈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 방구석에 서서 벌벌 떨며 우는 겁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그 아이 입에서 “아빠, 무서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빠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서운 아빠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따뜻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오히려 아빠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아빠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무서운 아빠이고 싶지 않지만, 아마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빠의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I have three children I love. My children now have grown up and become college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but they are still my most precious children. I am definitely transgenerational. Now, when I look at my father who is approaching the age of 80, I feel sad and grateful to him who was once an authoritarian father. So, I wanted to be an easy-going and fun father for our children. When my children were very young, they definitely liked me more than their mother. They even had fun taking a bath with their father.

However, as the children grew up and becam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did something wrong, I had to reproach and discipline them. Then one day, when I saw my youngest daughter, who was playing with her puppy outside, eating food without washing her hands, I rebuked her. My daughter when asleep that night got up and was standing in the corner of the room crying and trembling. When I ran to her she said, “Dad, I’m scared!” Surprised, I realized I became a scary dad to my children.

In fact, I hate being a terrifying dad. For children, I just want to be a warm, comfortable, and fun dad. So after that I tried to change a lot. How about now? On the contrary, they may see their father being too easygoing. But what’s clear is that they honor Dad’s words more than ever. Still, I don’t want to be a scary dad, but the image of a scary dad for my kids probably won’t go awa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3 OCT  
금 Fri

## 경건한 지도자

A godly leader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2장



새447장(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죄악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인도한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재물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 예레미야 22:6-18

**6**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만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7**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찢어 불에 던지리라

**8**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와가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9**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였다 할지니라

**10**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 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11**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 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3**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7**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8**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 Reading insight

God rebukes the kings of Judah for being accountable as their kings who have led the people of Judah to sin and death. They only used God-given power and wealth for themselves, not for justice or the common good.

### Jeremiah 22:6-18

**6** For thus says the LORD concerning the house of the king of Judah: “You are like Gilead to me, like the summit of Lebanon, yet surely I will make you a desert, an uninhabited city.

**7** I will prepare destroyers against you, each with his weapons, and they shall cut down your choicest cedars and cast them into the fire.

**8** “And many nations will pass by this city, and every man will say to his neighbor, “Why has the LORD dealt thus with this great city?”

**9** And they will answer,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covenant of the LORD their God and worshiped other gods and served them.””

**10** Weep not for him who is dead, nor grieve for him, but weep bitterly for him who goes away, for he shall return no more to see his native land.

**11** For thus says the LORD concerning Shallum the son of Josiah, king of Judah, who reigned instead of Josiah his father, and who went away from this place: “He shall return here no more,

**12** but in the place where they have carried him captive, there shall he die, and he shall never see this land again.”

**13** “Woe to him who builds his house by unrighteousness, and his upper rooms by injustice, who makes his neighbor serve him for nothing and does not give him his wages,

**14** who says, ‘I will build myself a great house with spacious upper rooms,’ who cuts out windows for it, paneling it with cedar and painting it with vermillion.

**15** Do you think you are a king because you compete in cedar? Did not your father eat and drink and do justice and righteousness? Then it was well with him.

**16** He judged the cause of the poor and needy; then it was well. Is not this to know me? declares the LORD.

**17** But you have eyes and heart only for your dishonest gain, for shedding innocent blood, and for practicing oppression and violence.”

**18**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concerning Jehoiakim the son of Josiah, king of Judah: “They shall not lament for him, saying, ‘Ah, my brother!’ or ‘Ah, sister!’ They shall not lament for him, saying, ‘Ah, lord!’ or ‘Ah, his majesty!’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7, 11-12, 18)

What is God telling the kings of Judah about not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vs.6-7, 11-12, 18)

하나님은 당신 역시 영적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다.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God wants you to be a spiritual leader too. What are you doing to become a spiritual leader?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마침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예수사랑감리교회, 오치용(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세상의 리더와 영적 리더

Secular leaders and spiritual leaders

헨리 블랙커비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의 리더와 영적 리더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그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를 통해 조직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런 리더를 성공한 리더라고 부른다. 그러기에 그는 반드시 유능해야 하고 변화되어가는 조직원들의 요구에 늘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의 리더십은 문제 해결과 성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영적 리더, 영적 리더십은 성숙을 요구하신다. 리더 자신의 성숙은 물론이요, 그에게 책임을 맡게 하신 조직원들의 성숙을 목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세상을 향해 정확히 대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리더에게도 조직원들에게도 한 분의 참 리더인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눈에 보이는 리더를 세우신 이유는 리더를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참 리더를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일 것이다. 영적 리더는 스스로 준비되었기에 자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Henry Blackaby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worldly leaders and spiritual leaders in a book called “Spiritual Leadership”.

“The leader in the world is a person who effectively solves the problems an organization has and maximizes the profits of the members through various ideas and attempts. Such a leader is called a successful leader. Hence, he must be competent and always sensitive to the needs of the changing organization. In this way, leadership in the world requires problem solving and success, but God-established spiritual leadership demands maturity. Not only for the maturity of the leader himself, but also for the maturity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held him accountable. It is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resemble God’s character and accurately represent it to the world. Strictly speaking, even for leaders and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t may be said that there is only one true leader, God, but the reason for establishing a visible leader is to follow and obey the true leader that is invisible through training. The leader will be trying to let them learn. Spiritual leaders are not self-prepared volunteers, but are appointed by Go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spiritual leader 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obey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th earnest prayer, and live life according to that guidan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4 OCT  
토 Sat

## 가까운 데에 계신 하나님

God nearby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3장



새459장(통514장)  
누가 주를 따라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아 흠어지게 하는 목자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흠어진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새로운 목자를 세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 예레미야 23:5-8, 23-31

**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2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나

**24**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6**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 그들이 서로 꿈 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 여호와와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 Reading insight

God speaks judgment to the false prophets and leaders who scatter the people by neglecting them. But God will bring His people back from the scattered places and raise new leaders to help them prosper. God's stern words are spoken to them.

### Jeremiah 23:5-8, 23-31

**5** “Behol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raise up for David a righteous Branch, and he shall reign as king and deal wisely, and shall execute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land.

**6** In his days Judah will be saved, and Israel will dwell securely. And this is the name by which he will be called: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7** “Therefore, behol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they shall no longer say, ‘As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the people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8** but ‘As the LORD lives who brought up and led the offspring of the house of Israel out of the north country and out of all the countries where he had driven them.’ Then they shall dwell in their own land.”

**23** “Am I a God at hand, declares the LORD, and not a God far away?

**24** Can a man hide himself in secret places so that I cannot see him? declares the LORD. Do I not fill heaven and earth? declares the LORD.

**25** I have heard what the prophets have said who prophesy lies in my name, saying, ‘I have dreamed, I have dreamed!’

**26** How long shall there be lies in the heart of the prophets who prophesy lies, and who prophesy the deceit of their own heart,

**27** who think to make my people forget my name by their dreams that they tell one another, even as their fathers forgot my name for Baal?

**28** Let the prophet who has a dream tell the dream, but let him who has my word speak my word faithfully. What has straw in common with wheat? declares the LORD.

**29** Is not my word like fire, declares the LORD, and like a hammer that breaks the rock in pieces?

**30** Therefore, behold, I am against the prophets, declares the LORD, who steal my words from one another.

**31** Behold, I am against the prophets, declares the LORD, who use their tongues and declare, ‘declares the LORD.’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미래의 왕 메시아의 보내심을 본 문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5-6절)

How does the text predict the arrival of the future King, the Messiah? (v. 5-6)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How can your words and actions be different because of the God who is always with you?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턴한인교회, 안성웅(IN)  
인디아나폴리스 KUMC, 이기채(IN)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당신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혹은 멀리 계십니까?”

How close or far is God to you?

오늘 본문 23-24절은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8-29절)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보든지 못 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사막의 가시덤불에 내린 불꽃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시내산에서도 천둥과 번개, 그리고 그곳에 가득 찬 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oday's verses 23-24 speak of God as never being far away, but nearby and everywhere in heaven and earth. Luke tells us in a different way that God is never far from us.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As some of your own poets have said, ‘We are His offspring.’ And since this is true, we shouldn’t think of God as an idol designed by craftsmen from gold or silver or stone.” (Acts 17:28-29) Obviously, whether we do see or do not see God, we are not only living in God, but only can exist in God and move in God.

God reveals Himself to His people. Moses saw God in the flames of the thorny bush in the desert. He felt God through thunder, lightning, and the smoke filled there, even on Mount Sinai, where he climbed to receive the Ten Commandments. The Israelites saw God in a pillar of cloud and a pillar of fire. Then came Immanuel (He is with us) Jesus to this world, who died for us and redeemed us, rose after the resurrection, and is with us through the Counselor Holy Spirit. Even now, He is always with u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이 가을엔

조영진 감독 (은퇴 UMC Bishop, VA)

저물어 가는 가을을 보며 괜시리 가슴이 싱숭생숭합니다.

7학년을 넘어서 그런지, 아니면 달려갈 길을 마감하시는 믿음의 어른들 때문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와는 답을 쌓은 건조한 인생인데 그래도 무언가를 써보고 싶네요.

지난 주말은 많이도 바빴는데, 그래도 이번 목회 칼럼은 제 싱숭생숭한 가슴을 털어놓고 싶네요. 그래서 꼬적거려 보았습니다. 절묘한 표현을 구사하는 언어의 마술사도 못되고, 아름다운 운율을 구사하는 매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고,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꾸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가을엔

이가을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대지의 품에 안기는 가을 잎들을 바라보며  
이가을엔 감사하고 싶습니다  
한 해의 땀과 수고를 갚아 주시는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 땅 가득한 가을의 열매들 앞에서

이가을엔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묘한 그분의 창조의 손길을  
낙엽마다 새겨진 그 솜씨 찬탄하며

이가을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영혼에 스며드는 따스한 손길 느끼며

이가을엔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손잡고, 그분의 길 찾아서  
순간들을 밝게, 붉게 물들이며

26 OCT  
월 Mon

##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Good Figs and  
Bad Figs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4장



새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하나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 예레미야 24:1-10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4**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 Reading insight

God showed Jeremiah a vision. There are two baskets in front of the temple, one with very good figs and the other with bad figs that cannot be eaten.

### Jeremiah 24:1-10

**1** After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had taken into exile from Jerusalem Jeconiah the son of Jehoiakim, king of Judah, together with the officials of Judah, the craftsmen, and the metal workers, and had brought them to Babylon, the LORD showed me this vision: behold, two baskets of figs placed before the temple of the LORD.

**2** One basket had very good figs, like first-ripe figs, but the other basket had very bad figs, so bad that they could not be eaten.

**3** And the LORD said to me, “What do you see, Jeremiah?” I said, “Figs, the good figs very good, and the bad figs very bad, so bad that they cannot be eaten.”

**4**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5**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ke these good figs, so I will regard as good the exiles from Judah, whom I have sent away from this place to the land of the Chaldeans.

**6** I will set my eyes on them for good, and 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land. I will build them up, and not tear them down; I will plant them, and not uproot them.

**7** I will give them a heart to know that I am the LOR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for they shall return to me with their whole heart.

**8** “But thus says the LORD: Like the bad figs that are so bad they cannot be eaten, so will I treat Zedekiah the king of Judah, his officials, the remnant of Jerusalem who remain in this land, and those who dwell in the land of Egypt.

**9** I will make them a horror 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to be a reproach, a byword, a taunt, and a curse in all the places where I shall drive them.

**10** And I will send sword, famine, and pestilence upon them, until they shall be utterly destroyed from the land that I gave to them and their fathers.”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5-7절, 8-10절)

What do good figs and bad figs mean? (vs. 5-7, 8-10)

여러분은 무엇에 진정한 삶의 닻(anchor)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What is your true anchor that you count on?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의 기준

God's standards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잡혀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쁜 무화과’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로 도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무화과’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포로로 끌려가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피해야 할 일>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쁜 무화과’의 길이 세상적으로는 <취해야 할 일>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In today's text, God speaks of good and bad figs. 'Good figs' refers to the Israelites who were taken to Babylon and repented, and 'bad figs' to those who remained in Jerusalem and Palestine without repentance and those who fled to Egypt. Remember the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figs are good or bad. God's path to the 'good fig' seems like a "to-be avoided path", which leads to greater suffering and hardship. Instead, didn't the path to the 'bad figs' seem like the way we should choose in this world?

But God's standards are clearly different. Colossians 3:1-2 says: "Since you have been raised to new life with Christ, set your sights on the realities of heaven, where Christ sits in the place of honor at God's right hand. Think about the things of heaven, not the things of earth." Sometimes, even if you take a different path away from your will, you should not have hope on something futile, but seek something eternal. I pray for and encourage all the member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o choose what God says is go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7 OCT  
화 Tue

##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You have not  
listened to My Word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5장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소명(1:10)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가 보여집니다. “70년간”, “분노의 잔”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 예레미야 25:8-18

**8**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1**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17** 내가 여호와와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 Reading insight

It shows how the mission (1:10) given by God when Jeremiah was called will be fulfilled. The words “70 years” and “the cup of anger” reveal how great is God’s anger at Israel’s sins.

## Jeremiah 25:8-18

**8**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of hosts: Because you have not obeyed my words,

**9** behold, I will send for all the tribes of the north, declares the LORD, and for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my servant, and I will bring them against this land and its inhabitants, and against all these surrounding nations. I will devote them to destruction, and make them a horror, a hissing, and an everlasting desolation.

**10** Moreover, I will banish from them the voice of mirth and the voice of gladness, the voice of the bridegroom and the voice of the bride, the grinding of the millstones and the light of the lamp.

**11** This whole land shall become a ruin and a waste, and these nations shall serve the king of Babylon seventy years.

**12** Then after seventy years are completed, I will punish the king of Babylon and that nation, the land of the Chaldeans, for their iniquity, declares the LORD, making the land an everlasting waste.

**13** I will bring upon that land all the words that I have uttered against it, everything written in this book, which Jeremiah prophesied against all the nations.

**14** For many nations and great kings shall make slaves even of them, and I will recompense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and the work of their hands.”

**15** Thus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id to me: “Take from my hand this cup of the wine of wrath, and make all the nations to whom I send you drink it.

**16** They shall drink and stagger and be crazed because of the sword that I am sending among them.”

**17** So I took the cup from the LORD’s hand, and made all the nations to whom the LORD sent me drink it:

**18** Jerusalem and the cities of Judah, its kings and officials, to make them a desolation and a waste, a hissing and a curse, as at this day;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까?

(11-12절)

How would God judge Israel?

(vs. 11-12)

나를 부인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부인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f you deny yourself, Jesus Christ will live in you. What are things you should deny?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에임스 사랑의 교회, 이병훈(A)  
과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I cease to exist to live by Jesus Christ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그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전했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The Israelites lost the land God promised because they did not obey God's Word and did not turn away from evil deeds. God tells them that when they return, they will inhabit the land again. But when they come back, it's not just about returning. They must realize that they are wrong and turn around. Their enlightenment will be “God's way is right.” They have to realize that “My way is not right”.

But returning is not easy. Jeremiah preached the word of God for 23 years and before that many prophets preached, but they were not converted. However, God's salvation will come to those who are converted. God will restore them. “First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Matthew 6:33)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8 OCT  
수 Wed

## 예레미야가 재판을 받다

The trial of  
Jeremiah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6장



새432장(통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무리는 죽일 이유가 없다 합니다.

### 예레미야 26:4-13

4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궤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10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와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11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12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 Reading insight

Jeremiah conveys the Word of God to the Israelites just as he heard. The priests, prophets, and people who heard these words say that Jeremiah should be killed. Others say there is no reason to kill him.

### Jeremiah 26:4-13

**4** You shall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If you will not listen to me, to walk in my law that I have set before you,

**5** and to listen to the words of my servants the prophets whom I send to you urgently, though you have not listened,

**6** then I will make this house like Shiloh, and I will make this city a curse for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7** The priests and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heard Jeremiah speaking these words in the house of the LORD.

**8** And when Jeremiah had finished speaking all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to speak to all the people, then the priests and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laid hold of him, saying, “You shall die!

**9** Why have you prophesied in the name of the LORD, saying, ‘This house shall be like Shiloh, and this city shall be desolate, without inhabitant?’” And all the people gathered around Jeremiah in the house of the LORD.

**10** When the officials of Judah heard these things, they came up from the king’s house to the house of the LORD and took their seat in the entry of the New Gate of the house of the LORD.

**11** Then the priests and the prophets said to the officials and to all the people, “This man deserves the sentence of death, because he has prophesied against this city, as you have heard with your own ears.”

**12** Then Jeremiah spoke to all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saying, “The LORD sent me to prophesy against this house and this city all the words you have heard.

**13** Now therefore mend your ways and your deeds, and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the LORD will relent of the disaster that he has pronounced against you.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합니까? (4-6절)

Why does Jeremiah say that the temple in Jerusalem is destined to collapse? (vs. 4-6)

예레미야에게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is God’s intention for Jeremiah to prophesy regarding the temple? (v. 13)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이오와시티 KUMC, 최군임(IA)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니까?

Are you listening to God's Word?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을 애타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의 몇몇 장로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기억했고, 여호야김 시대의 우리야 선지자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신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today's text God tells Jeremiah not to add to or subtract from the words of God. God is begging people to listen to Jeremiah's voice. Jeremiah, who obeys God, delivers God's words to the priests,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but instead they want to kill Jeremiah. However, some elders in the area realize it is the Word of God. They remember prophet Micah in the time of Hezekiah a long time ago and prophet Uriah in the time of Jehoiakim.

Even when God's words are spoken, if people do not listen, they will not only reject God's message, but will also fall into greater evil that kills God's people. Are you listening to God's Word? Hear the voice of God to be sanctified by the Word and prayer through submissiveness. My blessing in the name of the Lord is that you will stand in the place of salvatio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9 OCT  
목 Thu

#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Jeremiah's fight  
against false  
prophets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7장



새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오늘 본문은 B.C. 598년 시드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일어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으라 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줄과 멍에를 얹으라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 예레미야 27:1-11

- 1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 3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 5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 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 7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 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 9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 10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 11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받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 Reading insight

Today's text is set in the background of what happened when King Zedekiah's reign began in BC 598. God told Jeremiah to make a string and a yoke and put it on his neck. Also, by placing a string and a yoke on the hands of the delegates from various countries, God reminds people that He has all sovereignty.

### Jeremiah 27:1-11

**1** In the beginning of the reign of Zedekiah the son of Josiah, king of Judah, this word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2** Thus the LORD said to me: "Make yourself straps and yoke-bars, and put them on your neck.

**3** Send word to the king of Edom, the king of Moab, the king of the sons of Ammon, the king of Tyre, and the king of Sidon by the hand of the envoys who have come to Jerusalem to Zedekiah king of Judah.

**4** Give them this charge for their masters: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This is what you shall say to your masters:

**5** "It is I who by my great power and my outstretched arm have made the earth, with the men and animals that are on the earth, and I give it to whomever it seems right to me.

**6** Now I have given all these lands into the hand of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my servant, and I have given him also the beasts of the field to serve him.

**7** All the nations shall serve him and his son and his grandson, until the time of his own land comes. Then many nations and great kings shall make him their slave.

**8** ""But if any nation or kingdom will not serve this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nd put its neck under the yoke of the king of Babylon, I will punish that nation with the sword, with famine, and with pestilence, declares the LORD, until I have consumed it by his hand.

**9** So do not listen to your prophets, your diviners, your dreamers, your fortune-tellers, or your sorcerers, who are saying to you, 'You shall not serve the king of Babylon.'

**10** For it is a lie that they are prophesying to you, with the result that you will be removed far from your land, and I will drive you out, and you will perish.

**11** But any nation that will bring its neck under the yoke of the king of Babylon and serve him, I will leave on its own land, to work it and dwell there, declares the LORD. ""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을 잘 맨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11절)

What grace will be given to those who are well equipped to bear the yoke that God has allowed? (v. 11)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30절)

How is Jesus talking about the yoke God has allowed? (Matthew 11:29-30)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 KUMC,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나길석(L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Standards are made by God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 듣기를 즐겨 하지 말고 오히려 조심하라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가 모두 올바른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의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리”와 “올바른 소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칭찬은 듣기 좋았지만, 부모님이 타이를 때에는 서운하거나 외면할 때가 있었지 않았나요? 때로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때 깨달았었다면...’이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음성이 때로는 아픔이나 고통을 줄지라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 주님이 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The prophet Jeremiah warns the priests and all the people not to listen to the sweet words of false prophets any more, but to be careful. Everyone has “his or her favorite words to hear”. However, pleasing words may not be the right ones. The standard of my favorite word is “I” myself. However, the standard of “good sound” and “right sound” is God.

When you were young, your parents’ compliments sounded good, but when your parents criticized you, were there times when you were sad or turned off? Sometimes, after a while, you might experience regret if you realized your over-reaction at that time. Listen to the voice of God. Even if the voice sometimes causes pain or hardship, the God who loves us gives us the voice we need most. Today, among the many sounds in the world, I shall choose to listen to the Lord’s voi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30 OCT  
금 Fri

## 거짓 선지자 하나냐

The False Prophet  
Hananiah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8장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화를 통해 거짓 예언을 드러내시고, 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 예레미야 28:5-17

5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6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와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 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7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8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되리라

10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12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13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15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 Reading insight

When the false prophets roamed the land, there was a dialogue between God's prophet Jeremiah and false prophet Hananiah. In their conversation, God exposed false prophecies and said that He will judge them.

## Jeremiah 28:5-17

**5** Then the prophet Jeremiah spoke to Hananiah the prophet in the presence of the priests and all the people who were standing in the house of the LORD,

**6** and the prophet Jeremiah said, "Amen! May the LORD do so; may the LORD make the words that you have prophesied come true, and bring back to this place from Babylon the vessel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all the exiles.

**7** Yet hear now this word that I speak in your hearing and in the hearing of all the people.

**8** The prophets who preceded you and me from ancient times prophesied war, famine, and pestilence against many countries and great kingdoms.

**9** As for the prophet who prophesies peace, when the word of that prophet comes to pass, then it will be known that the LORD has truly sent the prophet."

**10** Then the prophet Hananiah took the yoke-bars from the neck of Jeremiah the prophet and broke them.

**11** And Hananiah spoke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saying, "Thus says the LORD: Even so will I break the yoke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from the neck of all the nations within two years." But Jeremiah the prophet went his way.

**12** Sometime after the prophet Hananiah had broken the yoke-bars from off the neck of Jeremiah the prophe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13** "Go, tell Hananiah, 'Thus says the LORD: You have broken wooden bars, but you have made in their place bars of iron.

**14** For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I have put upon the neck of all these nations an iron yoke to serve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nd they shall serve him, for I have given to him even the beasts of the field.'"

**15** And Jeremiah the prophet said to the prophet Hananiah, "Listen, Hananiah, the LORD has not sent you, and you have made this people trust in a lie.

**16**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Behold, I will remove you from the face of the earth. This year you shall die, because you have uttered rebellion against the LORD.'"

**17** In that same year, in the seventh month, the prophet Hananiah die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거짓으로 예언하는 하나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5-16절)

What is God's word to Hananiah who prophesies falsely? (vs.15-16)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기분 나빴던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Have you ever felt bad about a sermon delivered by a pastor? Why did you have that feeling?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제일중앙 UMC, 김대기(MI)  
디트로이트 KUMC, 신경림(M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내 입맛에 맞는 설교

Preaching that suits my taste

28장과 29장에는 예레미야가 아닌 또 다른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냐>라는 사람과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은 <유다>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냐와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벌하시고, 유다가 멸망함을 통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옳음을 보이셨음을 우리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보다 하나냐와 스마야의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했고 그들을 더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메시지가 더 듣기에 좋았고, 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와 <스마야> 역시 자신들을 따르고 모이는 이들의 마음을 굳이 불편케하고 싶어 하지 않기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양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듣기 좋은 설교, 자극적인 설교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듣는 이들도,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사역자입니다.

In chapters 28 and 29, the names of people who are prophets other than Jeremiah appear. They are Hananiah and Shemaiah. They spoke prophecy as the words of God. But their prophecy was a message of false hope that Judah would never perish. Thus, God punished Hananiah and Shemaiah and their descendants, and through the destruction of Judah Jeremiah's message was shown to be correct. We know the whole story now, but what about the people of Judah at that time? The majority of people liked and followed Hananiah and Shemaiah's words more than Jeremiah.

The reason was that their messages were more pleasant to hear and more people liked them. Hananiah and Shemaiah were also able to preach as God's Word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bother those who followed and gathered around them. Nowadays, many pastors and countless preachers focus on easy-to-hear sermons or intellectually stimulating lectures. The listeners also try to find a sermon that suits their taste. Hear the message from God. Make sure to preach only God's message as God's servant and believer.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31 OCT  
토 Sat

## 예레미야의 목소리

Jeremiah's Voice

### 통독본문 Reading Plan

예레미야 Jeremiah 29장



새375장(통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예언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계 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잘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 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게 된다면 그 약속의 기한 이 찻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예레미야 29:1-12

- 1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부갓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 2 그 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 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 3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 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 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 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 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 하시니라
- 5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 6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 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즐거워지 아니하게 하라
- 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 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 지 말며 너희가 꿈 꾸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 9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 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 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 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 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 는 것이니라
-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 Reading insight

Jeremiah prophesies by sending letters to the Israelites who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The content is that staying in Babylon is God's plan, and if they live well, settle down, pray to God only, and spend time with God, they will come back to Israel when His promise is due.

## Jeremiah 29:1-12

**1** These are the words of the letter that Jeremiah the prophet sent from Jerusalem to the surviving elders of the exiles, and to the priests,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whom Nebuchadnezzar had taken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2** This was after King Jeconiah and the queen mother, the eunuchs, the officials of Judah and Jerusalem, the craftsmen, and the metal workers had departed from Jerusalem.

**3** The letter was sent by the hand of Elasah the son of Shaphan and Gemariah the son of Hilkiah, whom Zedekiah king of Judah sent to Babylon to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It said:

**4**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to all the exiles whom I have sent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5** Build houses and live in them; plant gardens and eat their produce.

**6** Take wives and have sons and daughters; take wives for your sons, and give your daughters in marriage, that they may bear sons and daughters; multiply there, and do not decrease.

**7** But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where I have sent you into exile, and pray to the LORD on its behalf, for in its welfare you will find your welfare.

**8** For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Do not let your prophets and your diviners who are among you deceive you, and do not listen to the dreams that they dream,

**9** for it is a lie that they are prophesying to you in my name; I did not send them, declares the LORD.

**10** “For thus says the LORD: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visit you, and I will fulfill to you my promise and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12**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hear you.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11절)

What does Jeremiah say God really wants from the Israelites? (v. 11)

COVID-19 이후,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What has changed since COVID-19? How about spiritually?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 KUMC -영어부, 김인호(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조현준(MI)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COVID-19 이후에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What will the world look like after COVID-19?

2020년 3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공장도, 상점도, 식당도, 심지어 교회까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될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어쩌면 깨닫고 발견할지 모릅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그 무언가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COVID-19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In March 2020, an emergency broke out around the world. The coronavirus, which approached so suddenly, has completely changed all our daily lives. Factories, shops, restaurants, and even churches were all forced to close. I had never been able to imagine worship that was not offered at church. I never thought I would not meet devoted families of faith in person. Many faced economic difficulties that they had not experienced before. As the virus spreads, health concerns and difficulties will only grow.

I was afraid that everything would collapse spiritually because we couldn't pray and worship together. However, little by little as time passed, I wonder if this also has a right place in God's plan. While we are apart, we realize and rediscover what we had not been aware of spiritually and emotionally. This time is obviously so strange, confusing, and uncertain. I don't know which way it will unfold, but I am looking forward to something God will do.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confess the wonderful things of God who works through COVID-19.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 하루 \$ 1 per day □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0년 10월  
기쁨의 언덕으로

#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 예레미야 1:1-19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어찌해야 합니까? | 예레미야 8:18-9:1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 예레미야 18:1-12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 예레미야 24:1-10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1:1-19

##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새528장(통31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531장(통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 ① 여는 질문

당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부르심(콜링)은 무엇입니까?

### ② 본문 이해

여러분은 [홀다]라는 여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 홀다는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만 소개되고 있는 여자 선지자로서 남유다 왕국의 말기인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은 누구냐?

열왕기하 23:25절에 이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과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되돌아키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홀다는 요시아의 회개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홀다 선지자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너무 늦었다” 였습니다.

지난 55여년간의 <므낫세>의 악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피로 가득하고, 이 악함이 오래 유지되었기에 돌이키기에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받아서 그 남유다 땅 한복판에서 유다의 멸망을 직접 지켜보며 예언을 계속 이어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맞이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이나 되는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 전체에

애통과 눈물과 통곡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멈추지 않으신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희망이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한데요, “기승전-망”. 결과는 보나마나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서를 함께 보고 있지만, 앞으로 예레미야의 통곡의 울음 가운데, 여러분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 희망>을 찾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③ 말씀 속으로

1.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7-8)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은 무엇인가요? (1:11-14절)

###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떨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2.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⑤ 암송구절 - 예레미야 1: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 ⑥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8:18 - 9:1

## 어찌해야 합니까?



새 273장(통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새278장(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① 여는 질문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사이에서 경험하는(했던) 고민과 갈등은 무엇인가요?

## ② 본문 이해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에 남유다와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의 짧은 문장을 통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는 지금 슬프고, 근심에 차 있으며,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거나, 오해나 비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되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아픔이 나의 잘못이나 문제로 인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세상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사용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8:19-22)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유대나라도 바벨론 제국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애굽의 말을 들어야 할지 열강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도,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9:1)

### ③ 말씀 속으로

1.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두가지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8:4-7)
2.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 두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8:8-9)
3.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8:10-12)

### ④ 삶 속으로

1. 지금 여러분을 슬프고 근심하게 만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 세상의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요?

### ⑤ 암송구절 - 예레미야 8:21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 ⑥ 자녀와의 나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씀해보세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18:1-12

##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복음성가) 항상 진실케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375장(통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 ① 여는 질문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이 분명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 ② 본문 이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토기장이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서9장에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롬9:21-23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녹로로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만들던 그릇이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뜻은, 한마디로 “나는 [토기장이] 이고 너희들은 [진흙]이다.”라는 것입니다. 토기는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만 그의 뜻대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긴 항아리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시작한 토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넓은 접시 모양의 토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길 밖에 머문다면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렘 18:1)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유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마음의 완악함은, 그 죄를 지적하고 폭로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그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빛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 ③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자신들은 진흙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거부하고 있습니까? (12절)
2.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한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8절)

### ④ 삶 속으로

1.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2.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한 일을 후회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 ⑤ 암송구절 - 예레미야 18:6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 ⑥ 자녀와의 나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던 기억이 있나요?  
왜 그렇게 하게 되었나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24:1-10

##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새 423장(통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새463장(통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새465장(통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 ① 여는 질문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② 본문 이해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여호야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이고, 또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였습니다. 무엇이 좋은 무화과이고, 무엇이 나쁜 무화과일까요?

당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남 유다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고, 둘째는 여전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당시 우방으로 여겨졌던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좋은 무화과는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을 말해야 하고,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무화과는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곳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로 도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셨던 포로 된 자들은 앞으로 치욕스러운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들 눈에도, 우리 눈에도 그것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포로 된 자들이 그 고통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에 남아있는 이들이나 애굽으로 피난을 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만 탓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분명 우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③ 말씀 속으로

1.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5-7절, 8-10절)
2. 포로된 자들은 어떻게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6-7절)

### ④ 삶 속으로

1. 여러분들은 문제를 자신에게 찾으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찾으십니까?  
해결을 남에게 맡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2. 세상의 기준으로 ‘나쁜 무화과’였던 것이, 하나님에 의해 ‘좋은 무화과’가 된 예화가 있으신가요?

### ⑤ 암송구절 - 예레미야 24: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⑥ 자녀와의 나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Jeremiah 1:1–19

# What is God's calling for you?

## ① Opening Question

What is God's calling for you?

## ②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Have you ever heard the story of a prophetess named [Huldah]? Huldah is a female prophet during the king Josiah of Judah and is presented only in 2 Kings 22 and 2 Chronicles 34. Who is King Josiah? 2 Kings 23:25 introduces this king:

"Never before had there been a king like Josiah, who turned to the Lord with all his heart and soul and strength, obeying all the laws of Moses. And there has never been a king like him since."

King Josiah initiated the Reformation in order to repent of all the evils, idolatry, and sins committed by his father <Amon> and his grandfather <Manasseh>.

And Huldah is the prophet who led Josiah's repentance movement spiritually with the words of God. But the heart of the Prophet Huldah's message is, "It's too late now."

Because of the evils of <Manasseh> for the past 55 years, the whole of Jerusalem was full of blood, and this wickedness had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short, Huldah predicted, "You will perish." And it was the Prophet Jeremiah who received this prophecy and witnessed the destruction of Judah in the land of Judah and continued the prophecy. Jeremiah was called by God as a prophet to weep with the people for this last stage of destruction. Perhaps that is why Jeremiah is called <The Prophet of Tears>.

The book of Jeremiah has 52 chapters and is the longest among the Prophecies. Mourning, tears, and weeping are found throughout this prophecy. Perishing is vis-

ible. However, God does not stop the destruction. Is there hope? These days young people say, "Something was going well. but suddenly it is all messed up". They feel like they are ruined without even seeing the results. Where to find hope? We are now reading the book of Jeremiah, but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in the midst of Jeremiah's weeping, you will be able to find <the secret, the hope of victory in Jesus Christ>.

### ③ Into the Word

1. What was God's command to Jeremiah? (vs. 7-8)
2. What two visions did God show to convince Jeremiah? (vs. 11-14)

### ④ Into our Life

1. What is God's calling and mission for you in this age when the authority of God's Word has fallen?
2. How is the "God's redemption" promised to Jeremiah realized in your life?

### ⑤ Memory Verse - Jeremiah 1:8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declares the LORD."

###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does God feel when He looks at the world now?

Jeremiah 8:18– 9:1

# What should I do?

## 1 Opening Question

What are the anxiety and conflicts you have experienced between your secular life and your spiritual life?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espite God's words to repent of the nominal religious life of the people of Judah, they insist that it is all God's fault. As a result, Jeremiah's agony and conflict, who must prophesy that Judah and his people will be destroyed and taken captive by Babylon, will only grow. We can see how his heart is today in the short sentence in verse 18 of the text. "You who are my Comforter in sorrow, my heart is faint within me." How are you? Probably many people have experienced this situation.

We may have experienced this kind of heartache when we are betrayed by our family, we have a health problem, and we face an unexpected economic hardship. We can be depressed by misunderstanding or slander, or by losing our loved ones. Of course, this pain may be due to your fault or problem, but sometimes you may experience it for no reason. And in order to prevent or overcome these, we would have tried and used the methods of the world in our own way. But did you not realize that it wasn't until you finally came to the sense that all of these were not going your way, and only then did you find God? But even then, we resent God, saying, "Where was God when I struggled so hard?" However, God has never been without us. (8:19-22)

The people of Judah are still not comforted. They are still anxious and have no idea of what to do. The nation of Judah also has no idea of what to do with the Babylonian Empire or the Egyptians. Jeremiah sheds tears in the heart of God now for the people

of Judah who still look only at the world, even though nothing else in the world can satisfy them, and nothing in the world can save them. "If only my head were a pool of water and my eyes a fountain of tears, I would weep day and night for all my people who have been slaughtered." (9:1)

### ③ Into the Word

1. What are two parables about the stubbornness of the people of Judah? (8: 4-7)
2. What are two reasons why the leaders of Judah did not know the words of God? (Verse 8:8-9)
3. Why did they become false preachers? (8: 10-12)

### ④ Into our Life

1. What are the difficulties that make you sad and worried now?
2. What in the world is preventing you from trusting God completely?

### ⑤ Memory Verse - Jeremiah 8:21

"For the wound of the daughter of my people is my heart wounded; I mourn, and dismay has taken hold on me."

###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is God like to you? Talk about the God you experience.

Jeremiah 18: 1-12

# God is the Potter, I am the Clay

## 1 Opening Question

Think of the times in your life when it was crystal clear that God had led you.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od tells Jeremiah to go to the potter's house. Why did God tell him to do that?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earthenware in the Bible. And every time a story is told, it is about "God's sovereignty." The apostle Paul also quoted this potter's parable in Romans chapter 9: "When a potter makes jars out of clay, doesn't he have a right to use the same lump of clay to make one jar for decoration and another to throw garbage into? In the same way, even though God has the right to show his anger and his power, he is very patient with those on whom his anger falls, who are destined for destruction. He does this to make the riches of his glory shine even brighter on those to whom he shows mercy, who were prepared in advance for glory." (Romans 9:21-23) In today's text, Jeremiah also saw a potter making earthenware out of potter's furnace, but his bowl was broken. The potter then made another bowl he wanted again with a broken bowl. In other words, the message God wanted to convey to the people of Judah through Jeremiah is, in a word, "I am a [potter] and you are [clay]." Earthenware can only be made by the potter's hands at his will. Even the earthenware that started to make the shape of a long jar can be turned into a wide dish-shaped earthenware. If the clay stays outside the potter's hand, it is nothing but clay.

But what about the people of Judah who are called children of God:

"But the people replied, "Don't waste your breath. We will continue to live as we want to, stubbornly following our own evil desires." (Jeremiah 18:12) Didn't you see this in



the world we live in now? People live according to their desire and ideas regardless of the will of God. The temptation that keeps our heart centered away from God is as powerful as ever and now. And the hardening of their hearts makes them want to kill Jeremiah who pointed out and rebuked their sins. I remember the lyrics of the song I sang today: "The Lord is the potter and I am the clay. Make me. I pray that God will always sincerely transform my mind to be like Him."

### 3 Into the Word

1. How do the people of Judah reject that God is the potter and they are the clay? (v. 12)
2. What was the response of the people of Judah to Jeremiah who exposed Israel's

### 4 Into our Life

1. Are there any unchanging thoughts or habits you have?
2. Have you ever regretted what you did with your thoughts and judgment?

### 5 Memory Verse -Jeremiah 18:6

"O house of Israel, can I not do with you as this potter has done? declares the LORD. Behold, like the clay in the potter's hand, so are you in my hand, O house of Israel."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you ever done anything wrong, knowing that what you were saying or doing was not right? Why did you do that?

Jeremiah 24:1–10

## Are you a good fig tree?

### ① Opening Question

Does God want what you want now? Why do you think so?

### ②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oday's text is a vision given to Jeremiah by God when king Jehoiachin of Judah, son of Jehoiakim, was taken captive to Babylon. Jeremiah sees two baskets of figs placed in front of Jehovah's temple, one with very good figs and one with bad figs that are too rotten to eat. What is a good fig and what is a bad fig?

At that time, there were three types of people in Judah, who suffered a national crisis. The first type were the captives in Babylon, the second were those still remained in Jerusalem and Palestine. The third are those who fled to Egypt, which was considered an ally at the time. In general, it seems that those who fled to Egypt had the best results, and those who were taken captive by Babylon had the worst results. So good figs should refer to those who have fled to Egypt, and bad figs should refer to those who have been taken captive. However, God's perspectiv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s.

Figs that were good for God were repentant there, even though they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And the bad figs were those who had not repented and were still in Jerusalem and Palestine and those who had fled to Egypt. What is your standard for good and bad? And have you not decided good or bad according to your standard? But what is God's standard? Those who are captives, whom God says a good fig tree, will have a disgraceful slave life in the future. It is an unchangeable reality. In their eyes, in our eyes, it is what is clearly seen.

But God knows what we don't foresee. It means that those who are in captivity would be able to repent of their sins and look to God through the reality of the suffering. However, those who remained in Judea or who fled to Egypt would not admit their sins by blaming Jeremiah rather than repenting to God. Clearly, God's standards are very different from us. Which standard will you choose?

### 3 Into the Word

1. What do the good figs and the bad figs mean? (vs. 5-7, 8-10)
2. How could captives become good fig trees? (vs. 6-7)

### 4 Into our Life

1. Do you try to find a problem in yourself?  
Or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wrong in others?  
Do you leave the solution to others? Or do you leave it to God?
2. Do you have an illustration of what was "bad fig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world turned into "good figs" by the grace of God?

### 5 Memory Verse - Jeremiah 24:7

"I will give them a heart to know that I am the LOR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for they shall return to me with their whole heart."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You don't want to live according to your own will, but want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How can you know God's heart?

## 인종차별주의와 웨슬리 전통

글쓴이: 박충구 교수(감신대 은퇴교수, 생명과 평화 연구소 소장)



공권력에 의한 흑인의 죽음, 유독 미국에서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 5월 25일, 미니아폴리스에서 46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찰관 4명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가 20불짜리 위조지폐를 가지고 담배를 사려했다는 점원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 4명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플로이드를 제압하던 중, 한 명의 경찰관이 그의 목을 무려 8분 46초 동안이나 무릎으로 내리누른

결과다. 시민들의 제보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숨을 쉴 수 없다(I can not breathe.)”라는 절망적인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클리브랜드, 텍사스 그리고 뉴저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에는 흑인 소년 마틴(Trayvon Martin)이 백인 자경단의 총에 맞아 죽었고, 2014년에는 뉴욕에서 에릭 가너(Eric Garner)가 가치담배를 팔다가 백인 경찰에 의해 플로이드처럼 목이 눌려 죽었다. 같은 해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는 28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이,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22세 스테폰 클락(Stephon Clark)이, 2016년에는 미니아폴리스 근교에서 32세 필랜도 캐스틸(Philando Castile)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졌다.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한 항의와 시위가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 6월 12일 애틀랜타에



서펜실베니아 신시아 무어-코이코이 감독이 피츠버그의 고가도로 다리에 그려진 조지 플로이드의 모습 앞에서 서 있다. 흑인 남성 플로이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이 9분 가까이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렀다. 사진, 재키 캠벨, 서펜실베니아연회.

서는 27세 흑인 남성 부룩스(Rayshard Brooks)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의 잔혹성은 모든 인종을 가리지 않고 행사되고 있다. 하지만 흑인의 경우는 인구 대비 희생자가 유독 많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다수의 경찰은 버젓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 무수한 흑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경찰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에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옹호 받는 인종 간의 차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플로이드가 목이 짓눌린 채 숨 막혀 죽은 이유는 그의 피부색이 검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은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개인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모든 흑인의 대리적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백인 경찰에게 잔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흑인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찰들을 향한 분노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플로이드가 사망

하는 아내와 자식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피부색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 때문이었을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 자체는 매우 자연적이지만, 인종차별주의에 오염된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그 자연적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습관적으로 자신의 내부로부터 차별적 감정이 생겨난다. 그렇게 차별적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평소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관용이나 이해, 배려나 공감 능력은 저하되고, 차별의 대상을 향해 불관용이나 의혹, 무관심이나 비정한 태도를 보이며 야만적이면서도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19년간 경찰관으로 살아온 한 백인 경찰관과 그의 세 동료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그들이 평소에도 모든 인간을 향해 잔혹성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도 그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좋은 아빠이자 배려 깊은 남편이면서, 정의를 집행하는 것에 소명을 느끼며 살았던 경찰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인 나치 친위대 대원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대인을 향해서는 잔혹한 살인 행위를 퍼붓던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같이, 나는 그들이 일순간 살인자로 전락한 것이 평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해왔기 때문이라 추측해본다.

이처럼 인간을 향해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게 만드는 인종차별은 사회·문화적 연원을 가지며 권력 구조와도 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인종차별의 감정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미 내제되어 있다.

20세기 전반에 흐르던 인종차별주의적 편견을 국가들도, 기독교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나치의 인종학살에 반대해 해방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역시 1960년대까지 흑백 차별의 야만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자신을 하나님 은총에 의해 의로워진 사람들이라 여기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가? 이런 비극적 현실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개신교인들이 정신적 지주처럼 여기는 마르틴 루터도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루터가 1543년에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그는 유대인들

을 “독사의 새끼”라 불렀다. 그뿐만 아니라, “눈먼 소경이며, 기만과 속임수와 신성 모독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저주했다.

종교 개혁 이후 4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 나치의 정신적 스승이 루터라는 평가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루터의 종교 개혁 성지 비

텐베르크성 안에 세워진 한 교회 외벽에는 700년도 더 된 “유대인의 암돼지(Judensau)”라 불리는 부조(浮彫)물이 새겨져 있다. 거기에는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들과 암돼지의 뒷다리와 꼬리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토라를 읽는 랍비가 새겨져 있다. 누가 보아도 유대인은 새끼 돼지, 랍비는 음란한 자라 낙인찍는 반유대주의적(anti-Semitic) 조형물이다. 이런 조형물을 새겨 둔 교회에서 양육 받은 루터나 나치주의자들이 유대인을 사람이 아닌 더러운 돼지(Schweine)라 여겼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브라함 링컨도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는 북부연합의 결속을 짓는 동시에 남부의 결집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노예 해방을 지지했던 것이지 흑인을 백인과 평등한 존재라 여겼던 인물은 아니었다.

링컨은 1858년 9월 18일 일리노이 찰스턴에서 더글러스(Sen, Stephen Douglas) 상원의원이 그에게 “흑인과 백인을 평등하게 여기는 자”라는 의혹을 던지자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나는 흑인과 백인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일도 찬성할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또한 니그로(흑인을 비하하는 말)들에게 투표권이나 배심원이 될 자격을 준다거나, 그들에게 공직을 맡긴다거나, 백인과 결혼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생각에 찬성할 마음도 없고 찬성한 바도 없습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 벽에 새겨진 반유대인 조각, 유대인의 암돼지(Judensau). 사진, BBC 뉴스.



니다. 덧붙여,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있는 신체적 차이가 두 인종이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영원히 가로막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 인종이 함께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지내야 한다면 반드시 우월하고 열등한 지위의 구별이 있어야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백인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Chicago Press and Tribune, 21 Sep. 1858)

매우 놀라운 일이다. 종교 개혁자도, 민주주의의 아버지도 인종차별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 행위는 힘을 가진 다수가 힘이 약한 소수를 괴롭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차별하는 이는 차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여기에 차별의 야만성이 숨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 차별의 야만성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이것을 오늘의 세계가 요구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 했다. 인정의 정치는 차이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 “관용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인정의 정치와 관용의 윤리가 결여된 사회에서는 플로이드의 경우처럼 인간이 다른 인간의 가치를 비하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든다.

종교 개혁 시대나 링컨이 노예해방을 위해 법안을 제정하던 시절에도 명료하게 존재했던 인종차별적 편견은 모든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 안에는 인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차별받는 인간의 해방을 몸소 실천한 전통도 이어져 오고 있다.

18세기에 인정의 정치를 실천한 웨이커들과 웨슬리가 그중 하나다. 웨슬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이커(Anthony Benezet)들과 사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했다. 그는 1774년에 노예제 폐지에 대한 그의 신념을 담은 소책자(Thoughts upon Slavery by John Wesley)를 발간했다. 최초의 노예제를 반대하는 모임이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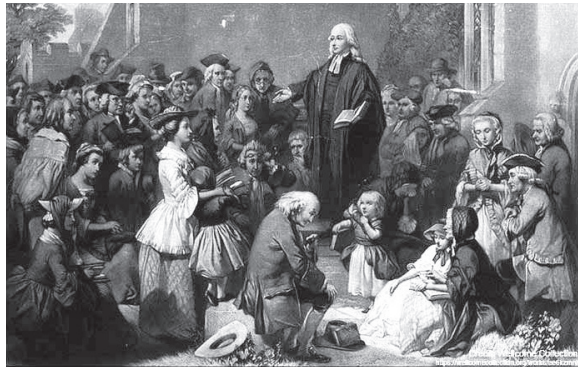
되기 3년 전의 일이다.

웨슬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는 웨이커의 평등주의를 수용하여 인종차별주의적 편견을 극복했다. 이런 까닭에 웨슬리 사상에는 인정의 정치, 관용의 윤리가 깊이 배어있다. 또한, 이런 사상을 품은 웨슬리

는 당대의 성차별 문화를 넘어 여성의 영적 지도력을 귀하게 여긴 페미니스트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전통이 어느 사회보다 깊이 배어있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적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감리교인이라면 인정의 정치, 관용의 윤리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경외의 윤리(ethic of respect)를 모든 영역에서 더욱 강력히 실천해야 할 때다.



존 웨슬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자(We Love All of God's Children).” 라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 출처, Wellcome Collection.

---

\* 연합감리교회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mailto:tkim@umnews.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감리교회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격주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 코로나 19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을 비추는 교회들

글쓴이: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지난 1월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확산되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으로 공식 발표한 데 이어 3월 13일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용연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낼 구호 물품을 담은 "사랑의 돌봄 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권오연 전도사.

이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에 들어갔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시 휴직 또는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 후 한동안 일시적인 팬데믹 상황의 호전과 미 행정부의 봉쇄조치 해제 등의 경제 재개를 위한 조치로 미국 실업률은 지난 4월 14.70%에서 5월 13.30%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가 반짝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7월 8일, 미국 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6만 명을 돌파했다. 총확진자 수는 300만, 사망자 수는 13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그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다.

7월 9일 워싱턴포스트지는 노동부의 보고를 인용하여,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140만 명가량으로 16주 연속해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100만을 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컬럼비아대 빈곤사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빈곤율이 5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어린이와 근로 연령층 성인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빈곤층을 위해 식료품을 나누어주는 “푸드팬트리(food pantries)”마다 사방에서 몰려든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 불황에 따른 푸드팬트리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기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함께 건너는 여러 한인공동체가 있다.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이전인 2018년부터 준비한 사역이 있었다.



CNN 뉴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으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도하고 있는 동영상 캡처.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철구 목사)에서 푸드팬트리 사역을 통해 식료품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 교회는 낡은 교회 건물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고 증축하기 위해 플로리다연합감리교재단(Florida United Methodist Foundation)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융자받았는데, 그 융자의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푸드팬트리 사역을 위해 시설을 갖추는 문제로 1년가량이 걸렸지만, 2020년 1월 둘째 주일부터는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의 빈곤층에게 식료품을 배급하는 피딩 남플로리다(Feeding S. Florida)의 파트너가 되어 본격적으로 푸드팬트리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몇 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사역의 초창기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100-120명에게 식료품을 제공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로 점차 식료품을 원하는 가정의 수가 급증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식료품을 전달하는 방식의 전환은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현재 교회는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봉사 시간을 연장했고, 매주 300-400여 차량이 식료품을 받아 가고 있다.



이 교회의 담임인 이철구 목사는 푸드팬트리 사역을 남부플로리다교회의 표어, “지역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병으로 교인들 사이에 이 사역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물론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역팀 리더들은 이 상황이야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말하며 사역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오히려 봉사자 수도 늘어났다. 식료품을 요청하는 신청자가 늘어나자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려했는데, 피딩남플로리다에서 코로나19 기간에는 식료품을 무료로 공급해주기로 했을 뿐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는 헌금도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준비할 때,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우리 교우들은 이 사역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이 목사는 사역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은 지역 중 하나인 뉴욕의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는 정부나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교회 자체 예산으로 푸드팬트리를 운영하고 있다.

제일교회의 선교를 담당하는 최찬영 목사는 “후러싱 지역은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많은 곳이다. 특히 서류 미비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부 출입마저 제한되다 보니 더욱 고립되고, 심지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아졌다. 교회 리더십 미팅에서 안전 문제로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급식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사역을 준비했던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최 목사는 “우리 교회는 정



뉴욕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의 교인들이 푸드팬트리를 위해 직접 구매한 식료품을 나누어 담고 있다. 사진 제공, 뉴욕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

부나 다른 기관에서 도네이션 받은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닌, 야채와 과일, 캔 음식과 라면 등을 직접 사서 토요일 오전에 나누어 준다. 시작 단계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식자재 50개와 라티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웃들과 나눌 식자재 100개를 매주 토요일 오전, 교회 옆에서 나누어주었다. 이제는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한인과 중국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이 찾아온다.”라며 현황을 전했다.

김정호 목사는 “급식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재정만으로는 계속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중단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바울이 증거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롬 5:3-4)’이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그 어느 때 보다 실감 나게 감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역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지원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앙의 어머니들의 기관인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도 자신들의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생명을 살리는 마스크 만들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재봉틀과 손바느질로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에 있는 양로원과 홈레스 쉼터, 봉사센터와 어린이 센터 등의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뉴욕의 의료진들이 방호복과 마스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한인여선교회 뉴욕연합회와 협력하여 뉴욕과 뉴저지 지역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N-98 마스크 2,300장을 구입하여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플로리다 탬파에 있는 선교센터에 어린이 마스크 7,000장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각 지역연합회에서 하루 만에 모은 3,000장의 어린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선교회 남가주연합회 이정숙 회장은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사진 제공, 김명래 총무.

여선교회의 이런 구호 활동에 대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미국 전역에서 한마음이 되어 섬기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인 것이 자랑스롭다.”라고 말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은 오늘도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비전’을 마음에

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스크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김명래 총무는 사역의 의미를 설명했다.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는 ‘사랑의 돌봄 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의 이웃들에게 보낼 물품들을 담은 가방을 만들고, 구호 물품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작성한 위로의 내용이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권오연 전도사는 가방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한 다섯 명쯤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열다섯 명이나 나왔다!”라며 감격을 금하지 못했다.

권 전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든 돕는 자리에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 이 모든 손길이 모여 우리 안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빛을...”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회원들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김명래 총무.

\* 연합감리교회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mailto:tkim@umnews.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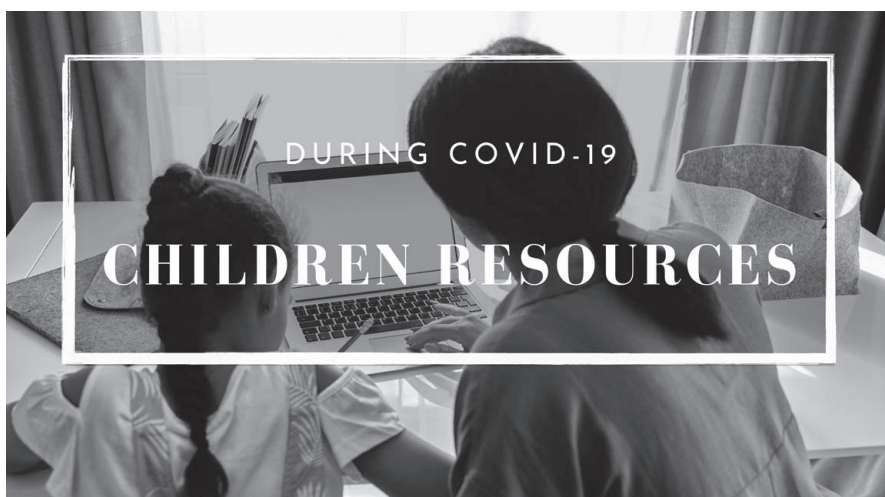
\* 연합감리교회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격주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 자녀를 위한 온라인 가정 예배 자료

### 자녀를 위한 온라인 가정 예배 자료

행복한 여름방학이어야 했다. 평소처럼 주택 단지 혹은 근처의 공용 수영장을 개장해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와 교회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캠핑을 하러 가거나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가야 하는 즐거운 여름방학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19가 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번 여름 방학은 단지 지난 3달 동안 이어져 온 자택 대피의 또 연속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 정부들이 회사, 식당, 체육관, 공원 등을 부분적으로 재개한 이후로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여름 방학 내내 아이들이 자택에서 지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어머니의 74%가 코로나바이러스-19가 시작된



사진, 어거스트 데 리첼리우, 픽셀스, 사진 편집,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어머니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Motherly”의 설문조사는 말한다. 3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3,000만 명 이상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는 어머니 중 적어도 97%가 코로나바이러스 자택 대피 기간 동안 소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이 미전역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4명이 코로나바이러스-19 발병으로 인해 자기 삶의 많은 혹은 일부분이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의 육아, 가정 교육, 온라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까지 해야 한다.

### **앰플리파이 미디어(Amplify Media)**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기간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른들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많은 경우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소외된다. 주일학교 어린이가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어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영어로 함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혹은 온라인 어른 예배를 한국어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알아듣기 힘든 것이 아이들의 현실이며 부모들의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출판부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앰플리파이 미디어”를 무료로 제공한다. 집중 시간이 적게는 12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되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답볼루키즈 커리큘럼과 비디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예수님의 삶, 사역, 가르침에 중점을 둔 애니메이션으로 온라인 설교를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콕스베리 키즈(Cokesbury Kids)**

주일 오전 9시나 10시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일학교를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콕스베리 키즈는 무료로 주일학교 수업을 제공한다. 콕스베리 키즈는 콕스베리에서 어린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콕스베리 키즈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연합감리교회 출판부 소매부서이다.

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콕스베리 키즈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면, 예배와 함께 그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서 수업자료의 날짜를 확인하고 미리 다운로드해서 자녀들의 주일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 웨슬리 형제 웹페이지(Wesleys Take the Web)

많은 한인 교회가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견신제가 과정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중단이 되었거나 연기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웨슬리 형제 웹페이지에서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제공하는 웨슬리 형제 웹페이지는 연합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두 형제가 연합감리교 신앙의 핵심 개념을 현대적인 언어로 설명한다. 또한 각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신학적 질문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는 10대 자녀들에게 웨슬리 형제의 비디오는 최신 음악, 영화, 뉴스 및 시사를 사용해서 10대들과 관련된 신앙과 삶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성서에 근거한 자료이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10가지 간단한 영적 훈련 아이디어

연합감리교회의 제자 사역부는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을 위해 무료 소책자를 만들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10가지 간단한 영적 훈련 아이디어는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 각자가 창의적인 표현, 신체 기도, 규명(가톨릭 수도회인 예수회에서 수행하던 영적 훈련으로 매일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는 영적 훈련을 말한다.)과 같은 영적 훈련을 개발하도록 돕는 10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제자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 기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공유한다.

---

\* 글쓴이 :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 흑인 교회를 담임하는 한인 목사가 바라본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 흑인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5월 25일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네아폴리스 소속 백인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 백인 경찰은 8분 46초 동안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질식사하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고, 그의 죽음이 백인우월주의와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미국 전역에 시위를 불러왔다.

### 한인들과 이번 사태와 관계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는 미국



전역의 대도시의 시내에서 발생했으며, 한인들이 흑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뷰티업계 (Beauty Supply)가 시위대의 약탈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 6월 6일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150여 개의 한인 상점이 약탈과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필라델피아(56건), 시카고(15건), 세인트루이스(11건), 미네아폴리스(10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9건)와 워싱턴 DC(8건)에서 한인 상점이 피해를 보았다.

반면, 전미 지역에 수많은 한인이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여했으며, 연합감리교회의 타인종 모회를 하는 한인 목회자들 역시 이 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약 150명의 사람이 서울 명동 모여 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기도 했다.

### 한인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레이스 오 목사는 “흑인의 억울한 죽음이 안타깝지만, 왜 온 나라가 한 명의 죽음 때문에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한인들이 있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이번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오 목사는 제도적으로 묵인되어온 흑인들의 차별을 한인들의 “한(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특히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恨)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화자가 되는 흙수저와 금수저의 비유를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나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면 금수저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 가정 이 유복하지 못하면, 흙수저가 되는 것이다. 출생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흙수저는 경쟁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잡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 목사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오래된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차별을 흙수저와 금수저의 비유로 바라본다. “미국은 부모의 영향으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에게 유리한 미국 시스템 자체가 피부색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눈다. 거의 모든 백인은 제도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나고, 많은 흑인이 흙수저로 태어난다.” 백인과 흑인의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차별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다. “미국에서 공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부자 동네의 좋은 학교에 사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바이올린, 기타 등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으며,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반면에 흑인들이 사는 가난한 지역의 학군에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에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뿐더러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허다하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교육의 제도적 차이가 드러난다. 많은 한인이 공교육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다.



그레이스 오 목사가 지역 경찰들과 찍은 사진. 사진 제공, 그레이스 오 목사.

오 목사는 “(미국에서) 백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살게 되었고, 흑인은 노력을 안 해서 못산다는 편견이 있다.”라고 말한다. 흑인들은 복지 수당과 자녀 양육비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할 또 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편견들이 있다. 이에 대해 오 목사는 “미국 역사의 초기에 백인은 대농장의 지주였지만, 흑인은 노예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으로 경제와 정치는 백인을 위한 것이었다. (1863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는 여전히 백인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인을 위한 법, 정치 그리고 경제 제도가 아니다. 쉽게 말해, 기득권자들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삶의 바닥에 있던 흑인들은 배우려고 해도, 잘살아 보려고 노력해도, 제도적으로 발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흑시 슬럼가의 흑인 사회에서 누구 하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게 되더라도, 진급의 기회에서 백인들과 차이가 역력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데, 제도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백인들에 비해 월등히 불공평하다.”

### 한인들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에 의해 질식사를 당했을 때, 또 흑인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여 시위를 할 때, 이 모든 것들 뒤에 있는 흑인들의 한(恨)을 보아야 한다. 오 목사는 “예를 들어 한 아이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아이



는 약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다. 심장이 약한 아이에게 심장이 건강한 아이처럼 못하는 것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약한 심장을 가진 흑인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한을 보아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형제자매와 부모 자식을 잃은 한인들의 한(恨)이야말로, 미국에 노예로 팔려 와 온갖 핍박을 받고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은 흑인들의 한(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감대일 것이다. 그러기에 한인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이로 인해 번지게 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를 볼 때, 그들의 한(恨)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

### 과연 미국이 바뀔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는 도시를 넘어서 백인들에게 또한 시골지역까지도 퍼지고 있다고 한다.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이 시위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흑인을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차별하는 미국의 시스템이 바뀔 수 있을까? 오 목사는 이에 대해 “백인들을 그들 위주의 제도들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이번 전국적인 시위가 정책과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바뀌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이 제도적, 경제적인 인종 차별이 바뀌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고쳐 써야 한다고 오 목사는 말한다. “미국의 건국 시기에 피와 땀을 흘린 흑인들의 노고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기반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기억되어야 하고 재평가되어야 하고, 재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시카고에서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목회(잉겔우드러스트 연합감리교회와 쏘튼 연합감리교회)를 하는 그레이스 오 목사의 유튜브 채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글이다. 오 목사의 흑인 목회 이야기는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서 더 들을 수 있다.

---

\* 글쓴이 :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왕해야 할 때

“ 개인의 삶과 사회 각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

홍성건 목사(NCMN 대표)는 『말씀관통 100일 통독』에서 아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원칙은 오직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의 다림줄(수직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를 달아 늘어뜨린 줄)과 같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홍왕할 때 각 영역에 변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홍왕해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올바른 지도력과 재정원칙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각 영역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취하게 될 가나안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가 중심 말씀입니다. 쉼마란 신명기 6장 4~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모든 것의 다림줄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왕할 때입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거기로부터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 MISSIONARY OF THE MONTH

Jobim, Amanda Alexandre

Advance : # **3022555**

Country : **Honduras**

Serving At :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Home Country : **Brazil**



Amanda Alexandre Jobim is a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She was commissioned on July 28, 2019.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Amanda is from Rio Novo, Minas Gerais, Brazil. S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Methodist church in Rio Novo, Minas Gerais. In 2018, she received a degree in production engineering from Salgado de Oliveira University, Juiz de Fora. She has worked as an intern, in sales and as a secretary.

When she was 6 years old, Amanda recalled, “I went to church with my father. At the age of 9, I made the decision to be baptized. At the age of 16, I received my call for missions, joined IMFORM and did two years of mission and evangelism. I flourished under the district superintendent of juveniles and I exercised my ministerial gifts within the communications ministry at my local church.” “I remained engaged in missionary projects to this day, waiting for God’s time for commissioning.””

**Contact Information : [aalexandrejobim@umcmmission.org](mailto:aalexandrejobim@umcmmis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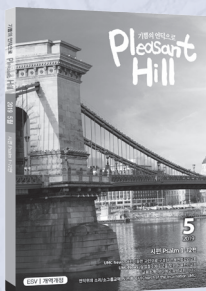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month

매월 \$35 per

20권  
30권  
50권  
100권

매월 \$70 per month  
매월 \$105 per month  
매월 \$175 per month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 말씀묵상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헨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스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기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리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임학춘, 949-380-7777)  
리팔미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엔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힐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욱,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8-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구진모,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정명민/가하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중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웅,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오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균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락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통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우,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오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일교회(최영원,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진, 603-430-2929)

####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벤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호,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벳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백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니목교회(문정용,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희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감리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기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인재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전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상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택,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현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관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0/01			2020/02			2020/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골로새서	1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주일
02		2	02		주일	02		1
03		3	03		2	03		2
04		4	04		3	04		3
05		주일	05		4	05		4-5
06	갈라디아서	1	06		5	06		6-7
07		2	07		6	07		8
08		3	08		7	08		주일
09		4	09		주일	09		9
10		5	10		8	10		10
11		6	11		9	11		11
12		주일	12		10	12		12
13	에베소서	1	13		11	13		13
14		2	14		12	14		14
15		3	15		13	15		주일
16		4	16		주일	16		15
17		5	17		14	17		16
18		6	18		15	18		17
19		주일	19		16	19		18
20	빌립보서	1	20		17	20		19
21		2	21		18	21		20
22		3	22		19	22		주일
23		4	23		주일	23		21-22
24	데살로니가전서	1	24		20	24		23
25		2	25		21	25		24
26		주일	26	룻기	1	26		25
27		3	27		2	27		26
28		4	28		3	28		27:1-28:2
29		5	29		4	29		주일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28:3-29:11
31		3				31		30-31

2020/04			2020/05			2020/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2	02		2	02		2
03		3	03		주일	03		3-4
04		4-5	04		3	04		5-6
05		고난주일	05		4	05		7-8
06	마태	21	06		5	06		9-10
07	마태	22	07		6	07		주일
08	마태	23	08		7	08		11-13
09	마태	26	09		8	09		14-16
10	마태	27	10		주일	10		17-19
11	이사야	53	11		9	11		20-21
12		부활주일	12		10	12		22
13	사무엘하	6	13		11	13		23-24
14		7-8	14		12	14		주일
15		9-10	15	호세아	1	15		25
16		11	16		2	16		26
17		12	17		주일	17		27
18		13	18		3	18		28
19		주일	19		4	19		29
20		14	20		5	20		30
21		15	21		6	21		주일
22		16	22		7	22		31
23		17	23		8	23		32
24		18	24		주일	24		33
25		19	25		9	25		34
26		주일	26		10	26		35-36
27		20-21	27		11	27		37-38
28		22	28		12	28		주일
29		23	29		13	29		39-40
30		24	30		14	30		41-42
			31		주일			



2020/07			2020/08			2020/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	01	역대하	6	01	사도행전	1
02		2	02		주일	02		2
03		3	03		7-8	03		3
04		4-5	04		9	04		4
05		주일	05		10	05		5
06		6	06		11	06		주일
07		7-8	07		12-13	07		6-7
08		9	08		14	08		8
09		10	09		주일	09		9
10		11	10		15	10		10
11		12	11		16-17	11		11
12		주일	12		18	12		12
13		13-14	13		19	13		주일
14		15	14		20	14		13
15		16	15		21	15		14
16		17	16		주일	16		15
17		18-19	17		22	17		16
18		20-21	18		23	18		17
19		주일	19		24	19		18
20		22-23	20		25	20		주일
21		24	21		26-27	21		19
22		25	22		28	22		20
23		26	23		주일	23		21
24		27-28	24		29	24		22
25		29	25		30	25		23
26		주일	26		31-32	26		24
27	역대하	1	27		33	27		주일
28		2	28		34	28		25-26
29		3	29		35	29		27
30		4	30		주일	30		28
31		5	31		36			

2020/10			2020/11			2020/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1	01	예레미야	주일	01	요한복음	1:1-18
02		2	02		30	02		1:19-51
03		3	03		31	03		2
04		주일	04		32	04		3
05		4	05		33	05		4
06		5	06		34	06		주일
07		6	07		35	07		5
08		7	08		주일	08		6
09		8-9	09		36	09		7
10		10	10		37	10		8
11		주일	11		38	11		9
12		11	12		39	12		10
13		12	13		40-41	13		주일
14		13	14		42	14		11
15		14	15		주일	15		12
16		15	16		43	16		13
17		16	17		44-45	17		14
18		주일	18		46-47	18		15
19		17	19		48	19		16
20		18	20		49	20		주일
21		19-20	21		50	21		C-1
22		21	22		주일	22		C-2
23		22	23		51	23		C-3
24		23	24		52	24		C-4
25		주일	25	예레미야애가	1	25		C-5
26		24	26		2	26		17
27		25	27		3	27		주일
28		26	28		4	28		18
29		27	29		주일	29		19
30		28	30		5	30		20
31		29				31		21

## Memo

---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

## Memo

---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김응선(총회 공보부), 오천의(총회 공보부)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서준석 목사(그린스보로 한인감리교회, Greensboro, NC)

### ❖ 주일 칼럼

김영훈 목사(와싱턴한인교회, VA)

홍삼열 목사(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CA)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FL)

조영진 감독(은퇴 UMC Bishop, V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